2015년 통권 제22호 전북회화회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2. 2015.
http://cafe.daum.net/artjb

전북회화

Chonbuk Painting





빈 들

고 재 종

초겨울 볕 여린 들에 선다
이제 그 가슴에 비울 것 다 비우고
저 홀로 은은한 들판에 선다
이 논 저 논의 짚벼눌만은 저리 단정한데
저기 용수배미 갈다 어제 낮참
뒷산 양지뜸에 묻힌 남평 영감 생각난다
흙에서 왔다 흙에서 살다
올 거둔 햅쌀밥 먹고 흙으로 돌아간
그 영감 성성하던 백발이 저기
돈들막의 갈꽃으로 일렁인다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에
마른 풀잎이 날고 지풀이 날고
논두렁의 늦은 들국 몇 송이가 눈물겹다
우리네 힘든 일엔 때가 있고
우리네 독새풀 같은 삶도 때 되면
필경 허허로운 평야로 순명 다하는 것
곧 이어 저 들에 보리씨 싹터 올지니
내일은 저 산밑 찬샘논 가는 만근이
그간 서른도록 장가 못 가 안달이더니
남원 처녀 데려와 새살림 차린단다
그리움 안고 지고 초겨울 빈 들에 서니
흙으로 가고 오는 사람들의 역사가
정정한 눈물로 그리워 보이고
저다지 넉넉 평평한 들 아니면 결코
우리네 삶 뜻도 없을 진실이 보인다
그 진실이 오래오래 빈 들에 서게 한다.



고 재 종

실천문학 신작시집 '시여 무기여'로 등단했다. 첫 시집 '바람 부는 술숲에 사랑은 머물고'를 실천문학사에서 발간했다. 1993년 시집 '사람의 등불'로 제11회 '신동엽창작상'을, 1997년 '앞강도 아무는 이 그리움'으로 '시와시학상'을, 2001년 '그때 휘파람새가 울었다'로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와 사람', '문학들' 편집주간과 (사)한국작가회의 광주전남지회장을 역임했다.

표지작가안내



가을이 깊어간다 / 96×65cm / 한지에 채색 2015

송 태 정 (Song, Tae-jeone)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2007-12,개인전3회 (전주소리문화전당)
- 2011 아메리카, 미술로 들여보기전(LA-verdugo gallery)
- 2013-14 센디에고에 부는 바람전(미국 캘리포니아)
- 2004-14 건지전(세종문화회관, 교동아트센터 등)
- 2014 전북회회화전 (인사아트 갤러리)
- 그외 다수 그룹전 및 초대전 참여
- 현) 전북미술협회, 건지전, 전북회화 회원
- 현) 전북 완주군 동양초등학교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호성로 170번지 진흥더블파크 311동 504호
- 전화 : 010-9860-3883
- E-mail : dduknemi@hanmail.net

전북회화

이천십오년 12월

제22호

전북회화회

CHONBUK PAINTING

●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이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전.북.회.화.회.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회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 김영애, 윤호, 이혜련, 최윤경, 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례,산동)
2004. 6 정기모임: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 · 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6. 2 미술 캠프 체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9. 29 정기세미나(허브랜드) - 전시회 및 회화지 발행 논의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화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1. 26 뉴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필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 - 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신입회원 이봉금)
2010. 11.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9. 2 정기 전시(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2013. 6 하계 MT.(전남 중도)
2013. 9 신입회원(송현성)
2013. 12. 10~15 정기전(교동아트센터)
2013. 12. 통권 제20호 발행
2014. 2. 13 정기모임(신입회원-송태정, 이동형, 최윤진)
2014. 8. 13~19 정기전시회(도립미술관 서울관)
2014. 8. 20~10. 22 최북미술관 초대전(최북미술관)
2014. 8. 23~24 하계 M.T(무주)
2014. 12 통권 제21호 발행
2015. 11 정기모임
2015. 12. 10~29 정기전시 (갤러리 누벨백)
2015. 12 통권 제22호 발행

C.O.N.T.E.N.T.S

03 올해의 작가
04 전북회화회 발자취
06 전북회화회 전시리뷰

나의작업노트
08 박성수
09 박지예
10 방정엽
11 송태정
12 안순금
13 이광원
14 이동형
15 이명자
16 이승훈
17 이철량
18 이환배

수필
20 **공원예찬** | 김종박

작업실탐방
24 **이동형 작업실을 찾아서** | 박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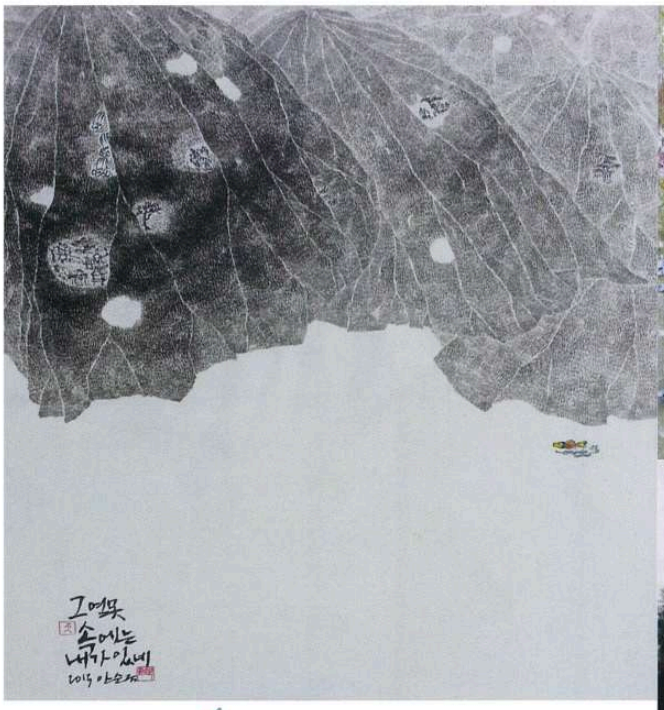
회화이론
28 **프란치스코 고야의 추의 미학에 대하여** | 최진희

미술관을 찾아서
34 **내적 풍경을 심상으로 표출한 정읍 풍경소리전** | 이승훈
38 **아시아 현대미술전을 다녀와서** | 송태정

학위논문
44 **석정 이정직 괴석도의 조형적 특징** | 박지예

여적
54 · 55 **읽을만한 책 / 회원주소** | 편집부
56 **편집후기**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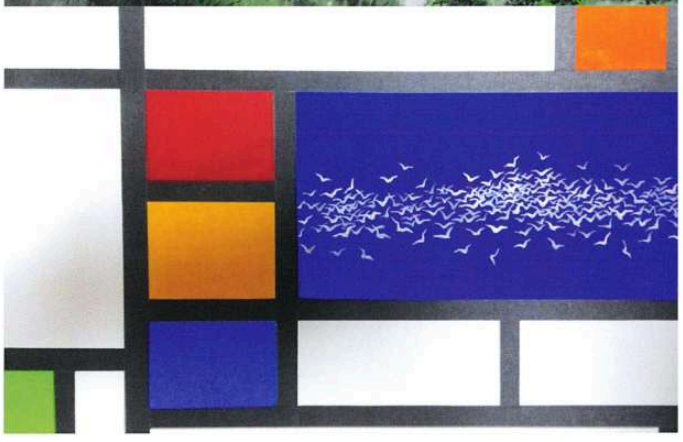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2, 2015.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2015 전북회화

2015. 12. 10(목) ~ 12. 29(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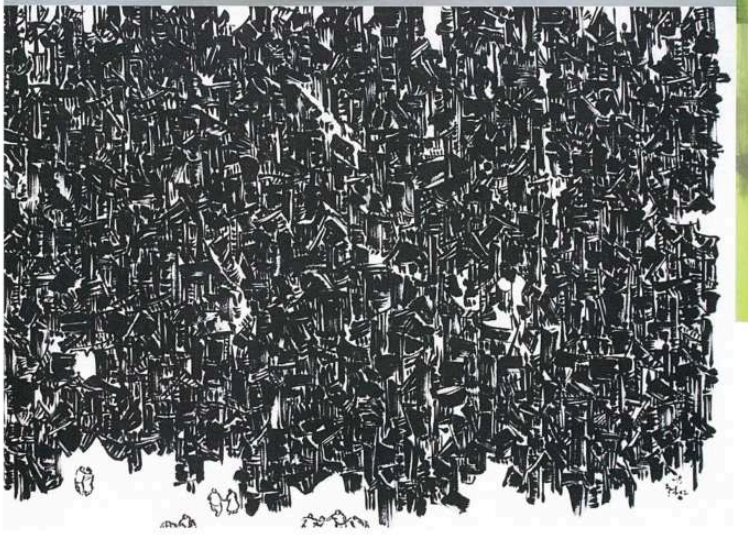
gallery 뉴델백

박성수 박지예 방정엽 송태정 안순금 이광원 이동형 이명자 이승훈 이철량 이환배















전생연구 / 130x97cm / 플렉스 천위에 아크릴 2015

지금에 나는 이 전까지의 인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아주 먼 옛날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을 법한 동물들과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주위의 존재들을 선별하여 합성을 한 듯 그림을 그려 보았다. 더불어 한명의 인물이 그려진 작품 또한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 한 면과 선들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박 성 수 (Park, Sung-soo)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 개인전 12회 • 그룹전 100여회 • 현)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출강
• 경기창작레지던시(2014~2015) •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2011~2012 단기)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45-9 • 전화 : 010-9992-3661 • E-mail : sspark0308@yahoo.co.kr



옆집 여인 / 69×136cm / 종이에 수묵채색 / 2015

그동안 본인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오며 다양한 환경과의 관계에서 유기적인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40을 넘긴 나의 모습은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이고 집안일과 직장에서 얻은 여러 일 속에서 나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삶에 지친 모습으로 살아간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러나 인생의 중반이 되면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욕망과 개인의 자유를 원한다.

주제의 옆집여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중년의 여성이며 곧 나를 포함한 우리의 엄마이기도, 당신의 아내이기도, 때론 직장의 동료이기도 하다. 나는 그녀들의 삶의 여러 감정이 미묘하게 드러나도록 인물에 집중하며 화면에 담아보고자 노력 하고 있다.

전시의 주제인 옆집여인은 여인의 형상을 몽환적인 신비감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몸을 반추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며 에로틱한 신체의 몸짓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여인의 여러 감정 속에서 여성의 신체를 통해 사랑과 에로티시즘을 주제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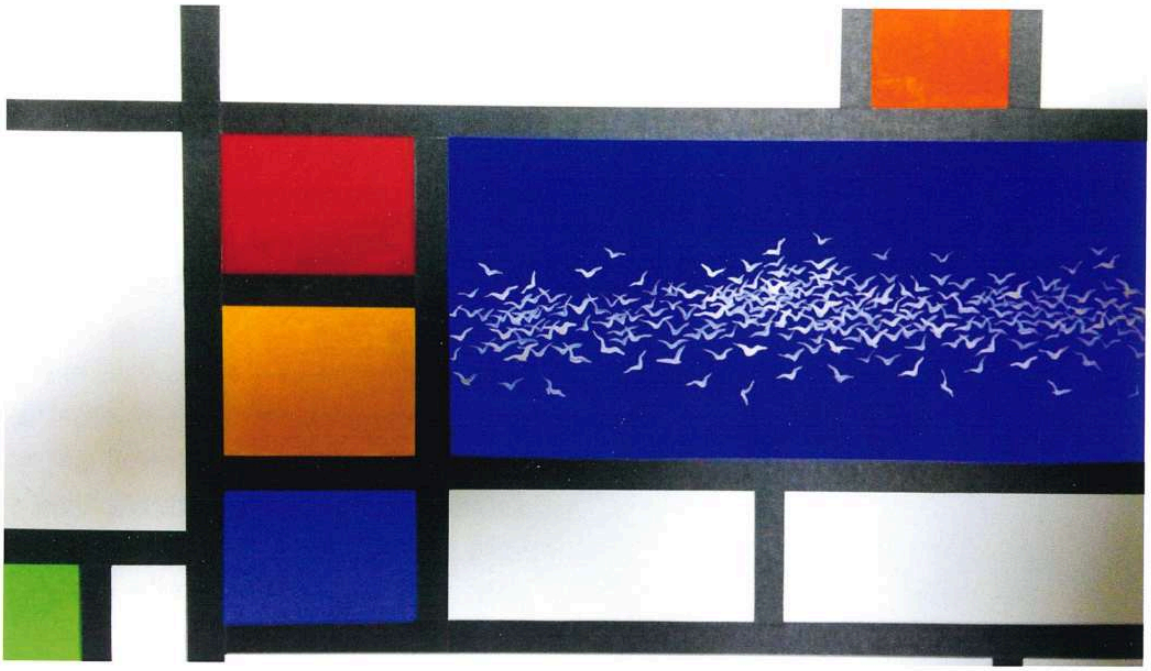
표현기법은 엷은 먹에 굵기의 변화를 주고 작품의 주 색은 여자의 살색을 기본색으로 여러색의 변화와 물의 농도에 따른 번짐은 상당히 에로틱한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모필의 표현에 있어서 붓의 탄력과 속도 그리고 측필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노력한다. 이는 엷은 먹빛에서 오는 부드럽고 우아함과 한편으로는 감추고 싶은 감정의 기복을 강하지 않은 연한 회색빛으로 표현 한다. 이런 부드러움을 살리기 위해 담묵에 호분(흰색)을 섞어 먹에 부드러움과 오묘한 분위기를 강조하려고 한다.

그리고 동양회화의 전통적인 '형(形)에서 신(神)을 얻는다' 는 인식으로 섬세하게 실타래처럼 느껴지는 한 중년 여성의 삶을 우리의 이웃이기도한 옆집여인을 통해 한국회화의 전통적인 먹빛과 선의 힘이 어우러진 화면 속에 등장시켜 현대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인은 현대미술의 동양적 접근을 고민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내제된 여인들의 아바타를 표출하여 실험적인 형상과 표현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2015.10. 19 박지예작업노트중에서〉

박 지 예 (Park, Ji-ye)

•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졸 • 전북대 대학원 박사 • 개인전 4회 • 1980년대와 한국미술(전북도립미술관) •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교 · 강사전(전북대학교예술진흥관) 외 다수
• 활동 (원묵회, 전북회화회, 인물작가회, 동질성,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 11/501 •전화 : 010-2658-7822, (집) 063-228-7822



비상을 꿈꾸며 / 1000x600 (mm) / 천+수묵+분채

비상의 날개 짓도 하지 못하고

피우지 못한 꽃들은

안타까운 사연만 남긴 채

그렇게

한 해가 또 가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멀 어 져 간 다.....!

방 정 엽 (Bang, Jeong-yeop)

• 전북대 미교과졸 • 전북회화회 · 미협회원 • 現) 남원여고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대우진버들아파트 207-802 •손전화 : 011-681-7127



가을이 깊어간다 / 96×65cm / 한지에 채색, 2015

가을편지

가을엔
이런 편지를 받고 싶다.

가을에 받는 편지엔
말린 낙엽이 하나 쯤은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린 낙엽의 향기뒤로
사랑하는 이에 체취가 함께
배달 되었음 좋겠다.

그 편지지 위로
보내온 이의 얼굴을 떠올리다가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에
눈물을 쏟게 되어도

– 유미상시인의 〈가을편지〉중 –

빛 좋은 낙엽을 집어 들며 깊어가는 가을을 보내기가 너무 아쉽다. 〈작가노트중에서〉

송 태 정 (Song, Tae-jeone)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2007-12,개인전3회 (전주소리문화전당) • 2011 아메리카, 미술로 들여보기전(LA-verdugo gallery) • 2013-14 센디에고에 부는 바람전(미국 캘리포니아)
• 2004-14 건지전(세종문화회관, 교동아트센터 등) • 2014 전북회회화전 (인사아트 갤러리) • 그외 다수 그룹전 및 초대전 참여 • 현) 전북미술협회, 건지전, 전북회화 회원
• 현) 전북 완주군 동양초등학교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호성로 170번지 진흥더블파크 311동 504호 •전화 : 010-9860-3883 •E-mail : dduknemi@hanmail.net



그 연못 속에는 내가 있네 / 83×110 cm / 수묵담채 2015

그 연못 속에는 내가 있다.

연못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나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불어오는 바람에 나부끼는 연잎도 보인다. 연못은 참 많은 것을 품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와 소나무,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찰들을 그리며 더 많은 것을 품고 싶었다. 커다란 산 속에 태고의 신비와 오묘한 자연의 깊이를 붓 터치의 반복과 적묵법(積墨法)의 짧은 선들을 사용하여 담고자 했다.

안 순 금 (An, Soon-geum)

• 전북대학교 미술교육 학 · 석사, 영국 코벤트리 대학 석사 • 개인전 3회 – 1997. 얼화랑(전주), 2004. The Glass Case, Herbert Art Gallery & Museum (Coventry, UK.), 2005. 우진문화공간 기획초대전(전주) • 단체전 및 기획전 : 젊은 세대 새로운 시각과 조형전, 전라한국화제전, 전북도립미술관 개관전- '전북 미술의 조명'
• 現)전북회화회 회원 • 現) 김제여자고등학교 재직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433-1 • 전화 : 010-2635-6314, 063) 546-2517 • E-mail : f12-4@hanmail.net



눈 내리는 날 / 95×90cm / 비닐판, 아크릴, 분채

첫 눈이 내리는 날, 감나무를 보게 되었다.

눈꽃 속에 감나무.

하얀색과 빨간색의 어우러짐이 안정감을 준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 광 원 (Lee, Kwang-won)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한국과 전공) •개인전 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3회, 입선 2회 **焼奐** •개천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춘향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2회, 입선 1회 •전국 무등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단원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신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아시아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벽골대전 입선 1회 •우수대학원생 초대전(안산단원미술관) •KAF 2005 코리아아트페스티벌 초대전(세종문화회관)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국 춘향미술대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 · 전북미술협회 · 전주미술협회 회원 •전북회화회 회장 •주소 (우)55122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181, 3동 1104호 •전화:063)225-6292, 010-3656-6292 •E-mail : leekwon1117@hanmail.net



shape / 119x91cm / oiloncanvas 2014

'조합' 감정의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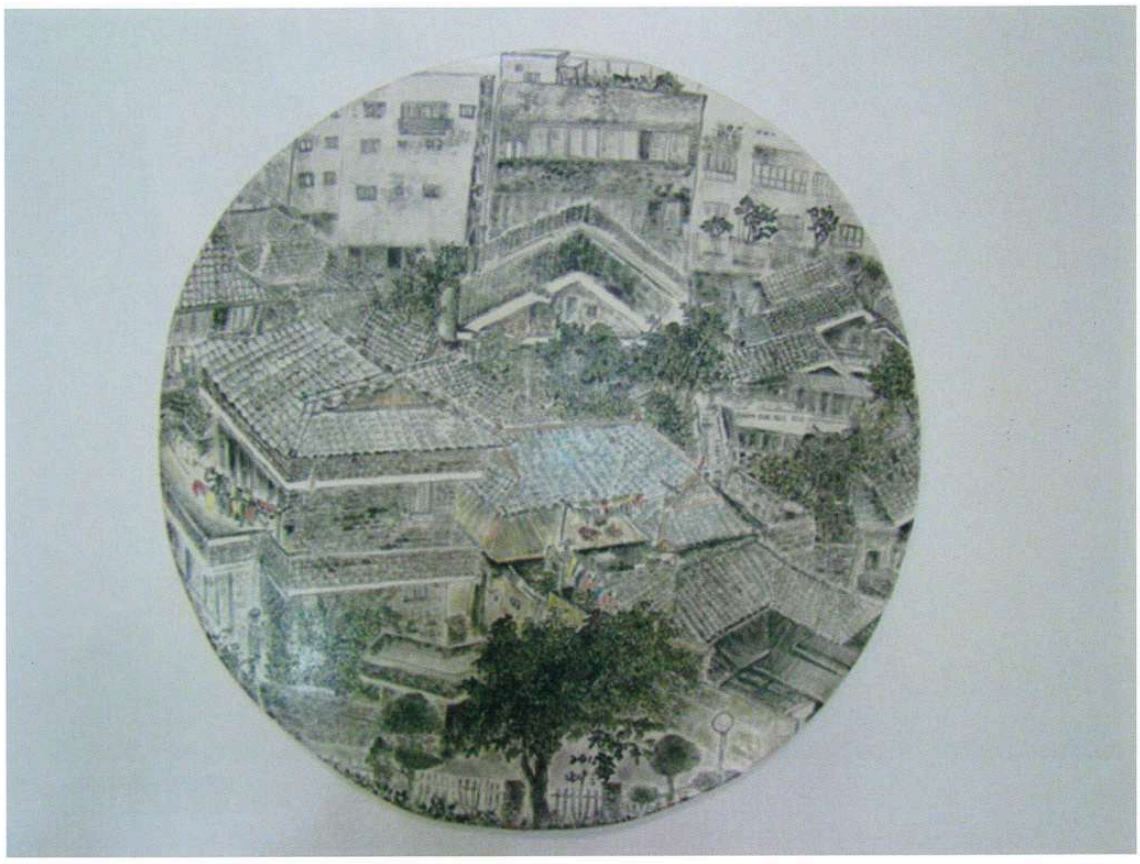
작업의 근간이 되는 '조합' 을 기초로 한 구성은 상황에 따른 내면의 감정 상태에 따라 작업의 방향성 또한 유동적이며,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형상은 도상간의 무작위적인 이질적 상생관계를 통해 프레임 속에서의 새로운 합일을 이끌어낸다. 작업의 사상적 근원으로 한국 미학 이론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미적 이상으로 '신인묘합神人妙合' 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호주체가 통합을 지향하는 '신인묘합神人妙合' 은 주체가 되는 양쪽이 합일이나 일체가 아니라 묘합 이 되는 것인데 어우러질 수 없는 상극의 존재들이 오묘하게 통합 되어 있는 '접화接化,grafting' 의 상태이다. 대립되는 존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접화는 중심이 없는 균등한 통합과 어울리지 않는 상극의 존재 그리고 상생의 관계를 상징한다.' 〈한국의 미학〉 최광진 지음

각기 다른 발원의 유기체와 무기체의 이질적 관계, 무중력 상태의 불규칙한 구성은 작업을 하는 본인에게 자유로움을 제공한다. 규제에 대한 불안한 감정과 경계심으로 비롯되는 사유를 통해 형성되는 도상의 상생은 프레임 안에서만 실현 시킬 수 있는 현실을 초월한 탈선이며, 동시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각하는 작가 본인의 내면 탐구와 감정 상태를 반영, 형상화 시킨다.

이 동 형 (Lee, Dong-hyoung)

• 2012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석사 수료 • 개인전 : 2011 Awake in the park (공원에서 깨어나다) • 그룹전 : 2014 전북회화 정기전 (전북도립미술 서울관), 2014 전북도립미술관-강소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특별전 (강소성미술관,중국) • 주소: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288번지 • 전화 :010-3048-7566 • E-mail : tamguboy@naver.com • tamguboy.blog.me



달에 비친 동네풍경 / 40×40cm / 세라믹 / 2015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풍경을 그리다보니 어느 날 문득 동네의 모습이 서서히 달라져 감을 느낀다.
밝았던 눈이 안경 없이는 흐릿하게 변한 것처럼, 기와집이 양옥으로 바뀌고
단독 주택이 원룸의 형태로 바뀌는 동네의 모습을 만난다.
나의 삶도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며,
오늘 만난 나의 삶의 단상에 관심을 갖고 그곳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본다.

나의 이웃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곳의 아기자기한 삶을 작은 터치로 이야기한다.

이 명 자 (Lee, Myong-ja)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과 졸업 •2010년 2012년 전북아트페어(한국소리문화전당)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입특선 4회
•세계서예비엔날레 입선 1회 •대한민국 새천년 서예문인화대전 입선 1회 •춘향미술대전 입특선 3회 •영호남 미술교류 소통 & 만남전 외 다수그룹전 출품
•현)남원고등학교 교사 •주소 :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낙산 4길 111-6 •TEL : 자택(T) : 063 547 5896, 직장(T) : 063 630 7923, 010-8004-5895 •E-mail : mjlee0117@hanmail.net



대둔산에 올라가 / 30호 / 지본수묵,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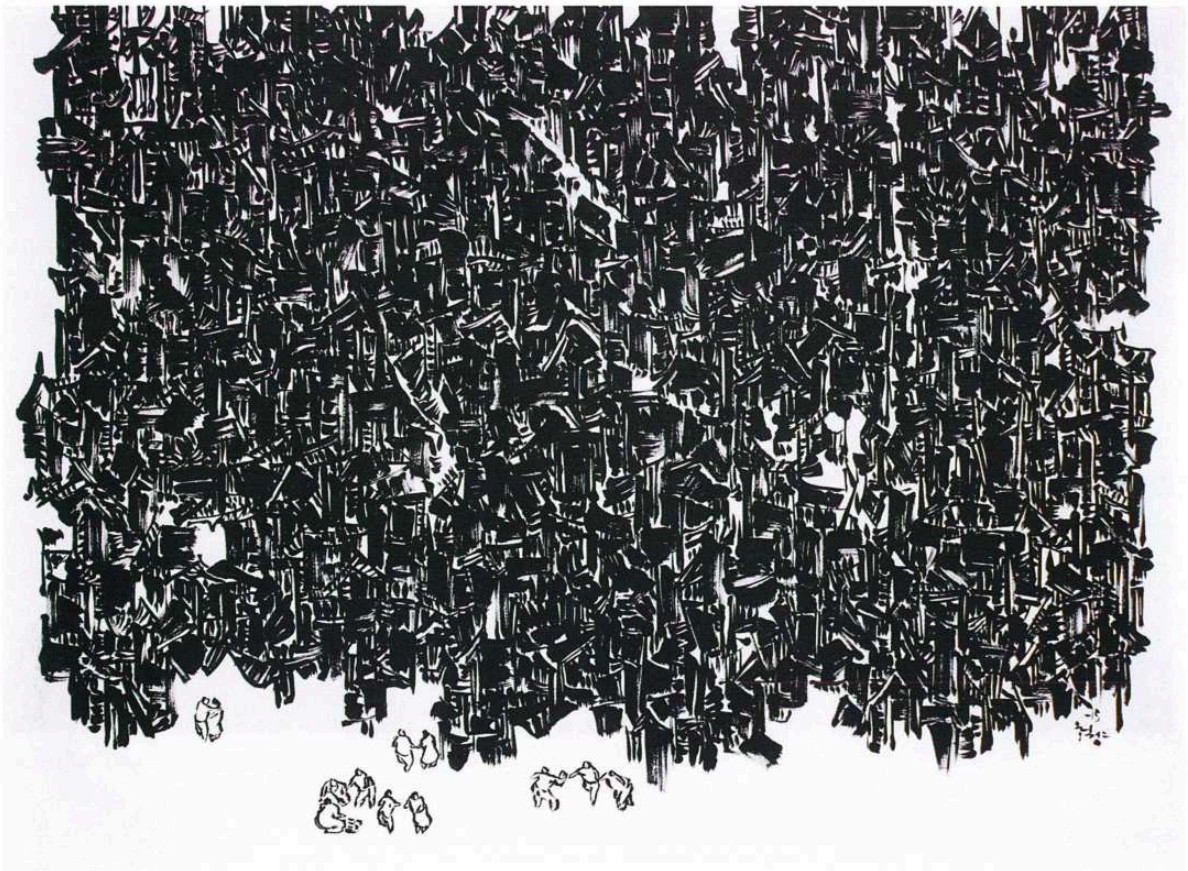
뭇사람은 소리치며 내세우지만 청산은 말없이 푸르구나. 잠깐 시선을 돌려 보면 자연의 소리가 다 노래 소리인 것을 알게 된다.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오늘을 산다고 하지만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 마음이 행복한 이는 들꽃도 아름답고 작은 이파리에서 생명을 느끼는 가 보다.

엊그제 친아우를 먼저 하늘로 보냈다. 타국에서 업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아끼는 것을 이제 못보고 갔다. 평소 귀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것이 쓸쓸하고 외롭고 황망하기만 한 것을 느낀다. 그 마음을 추스르고 산다는 것이 또한 삶인 것이리라.

청산을 보면서 이제 나이 들었으니 나이에 맞게 나누고 돌아보고 놓아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하리다.

이 승 훈 (Lee, Seung-hoon)

• 全州大學 美術敎育科 同 大學院 美術學科 卒業 • 個人展 3回 • 인물 파노라마전 • 전북중견청년작가전 • 익산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전 출품 • 시화집 〈빈들의 소곡〉, 〈달개비 꽃 하늘〉 출간 • 미술문화컬럼집, 〈감성 그 시간 속으로〉 출간 • 한국미협, 지붕전, 산묵회, 전북회화회, 아트회, 현대드로잉회 등 會員 • 現)군산대성중학교 재직
• 주소 : 94658 전북 익산시 배산로 91-9, 303동607호 (모현3차 현대아파트) • 직장전화 453-2127, 전화 063)851-0577, (H · P)010-4115-0577 • E-mail : misege@hanmail.net



city15-1 / 165x91cm / Muk on canvas 2015

도시(city)는 새로운 자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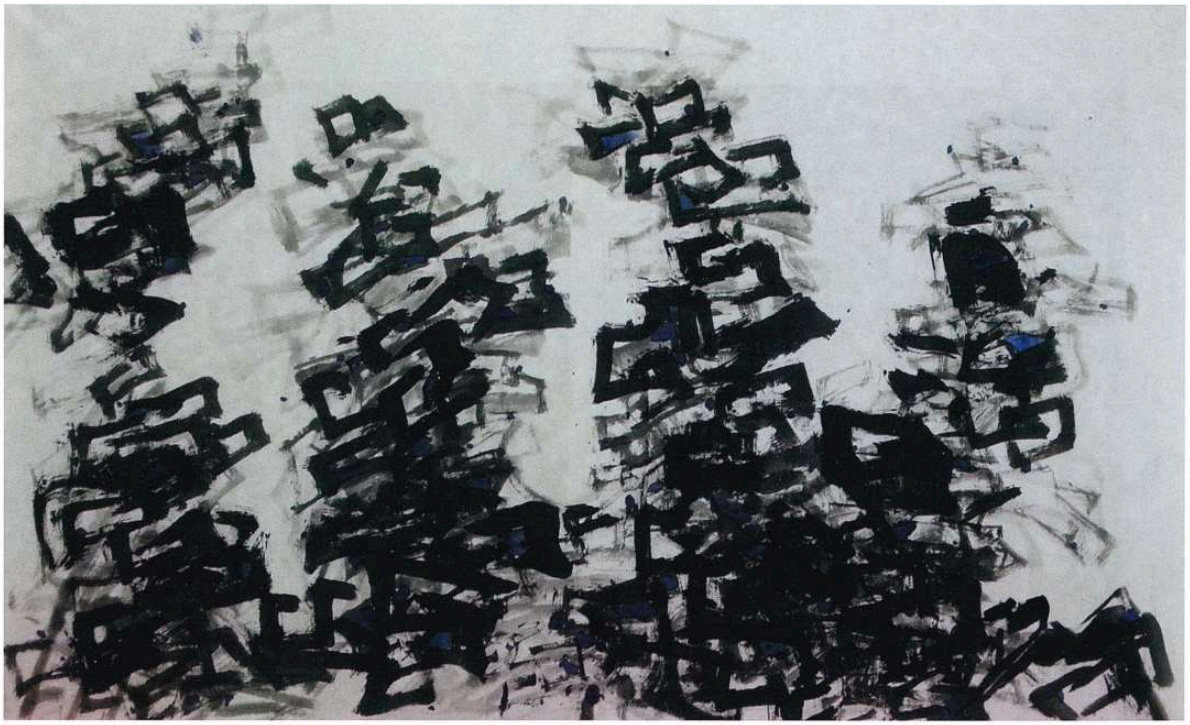
이미 도시는 스스로 생성하고 소멸하는 거대한 생명체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한다. 그래서 도시는 우리에게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다.

이 철 량 (Lee, Choul-ryang)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한국화 1953-2007(서울시립미술관) • 1988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 1992 선묘와 표현-현대 한국회화전(호암갤러리)
- 2001 수묵의 향기, 수묵의 조형-한.중.일 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 • 드로잉-새로운 지평(덕수궁미술관) • 2005 한.중 현대수묵전(서울시립미술관) • 도시와 미술(서울시립미술관)
- 2011 한국화 재발견전(성남아트센타) • 2012 MANIF SEOUL(한가람미술관) • 2013 KIAF(Gallery MEE) • 서울 국제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 한국화 100년전(호암갤러리)
- 현)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335-1



墨想-2015 / 150×80cm / 수묵담채 2015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마을 앞 들녘을 지나 가끔 고추밭에 갔지

그곳으로 가는 야산 오솔길 옆으로

돌무덤이 항상 그 자리에 우둑하니 자리하고 있었다.

이 환 배 (Lee, Whan-bae)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 •한국화 2인전(전북예술회관)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시립미술관/서울)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전(홍갤러리/서울) •정선아라리회화제(백상갤러리)
•우리의식공동체전(문예진흥원/서울) •의식의 확산전(예술의전당/서울) •감성표출전(인테코화랑/서울) •동악 71~94(문형궁미술관/서울)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종합예술회관)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전북회화회전 •前)예원예술대, 전통문화고, 전주예술고 출강 •現)그린섬 총원장
•주소: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현대4차@ 402-204 •전화:010-3673-1562, 063)283-6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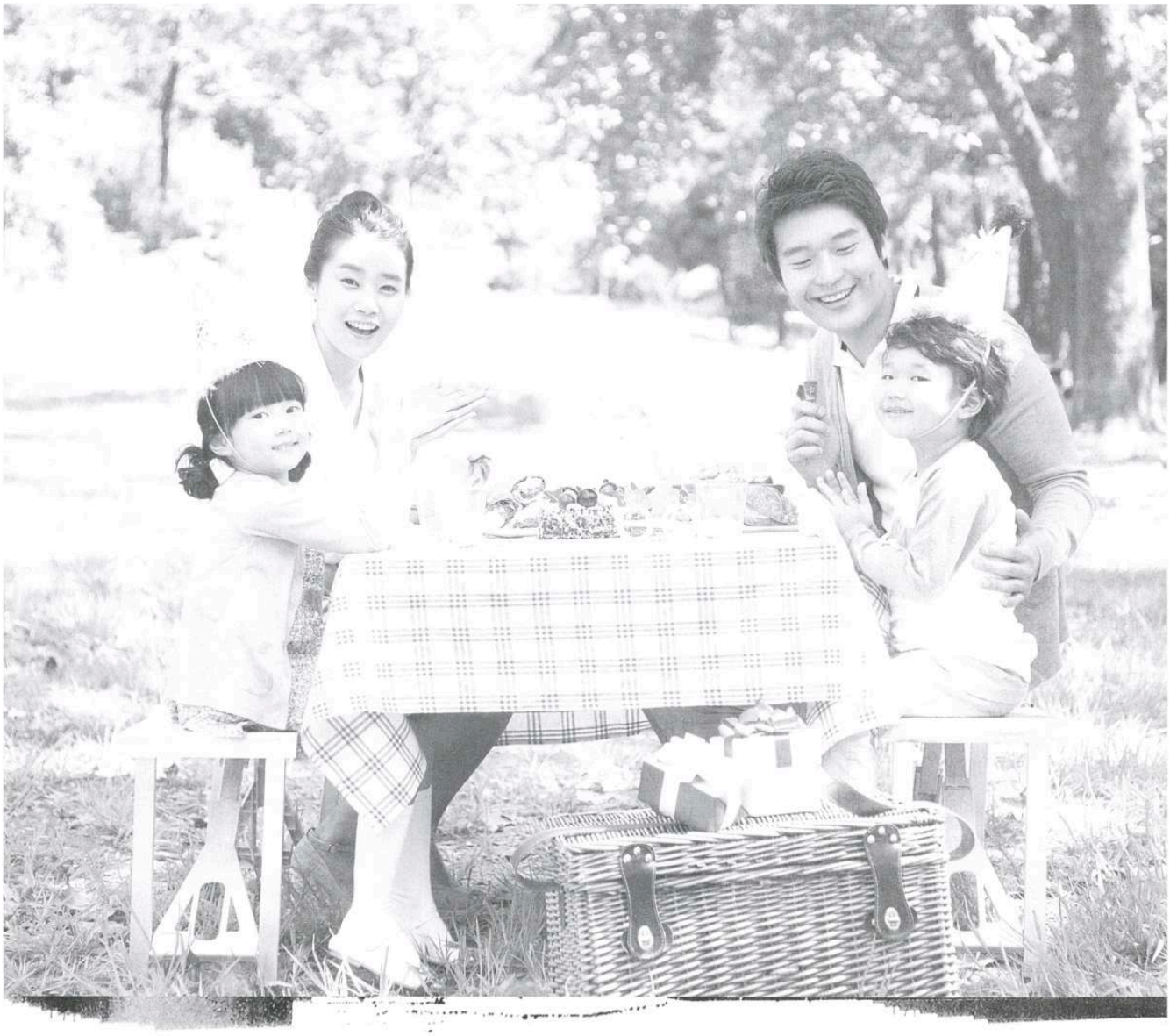
가을을 보내면서

이 광 원

내가 물들인 말이 강물에 씻겨가도
같은 사람 음성이다.
그 창가, 강변의 나무, 새털구름, 낙엽 떨어지는 소리
이 모든 것
생각이 깊어질수록
내 노래는 기도가 되고
눈물 젖은 속삭임이 되고
흐느끼는 물결이 되고
죄 없는 추억이 어찌 그리 미운 건지
잊었는데, 잊어서 깡그리 잃었는데
문득 와서 아리도록 그립다가
다시 멀어져 가는 건지
날리는 낙엽은 차가운 눈보라
가을, 햇살만
고개 숙인 나를 비추는.

이 광 원 (Lee, Kwang-won)

· 자유문학으로 등단 · 국제 해운문학상 본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 전주시인협회 회원
· 現전주문인협회 부회장 · 現한국미술협회 · 전북미술협회 · 전주미술협회 회원 · 전북회화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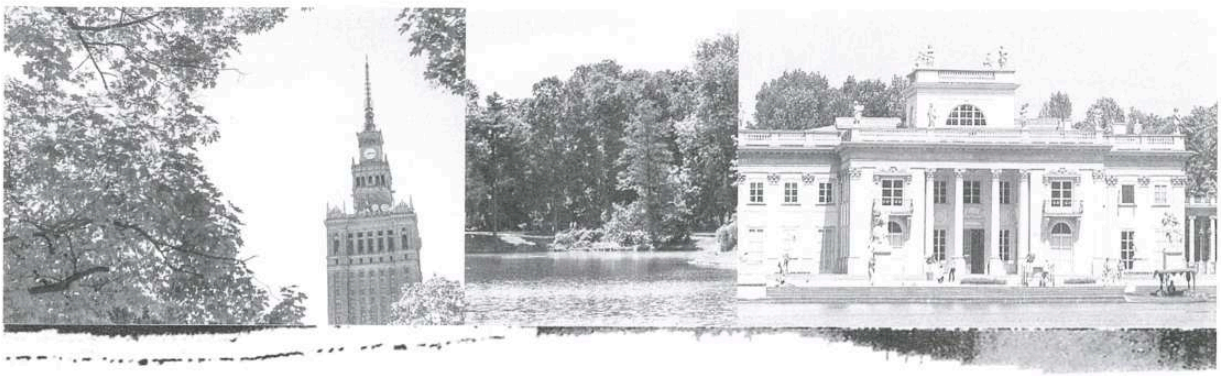


공원예찬

글 **김종박**(한국문인협회 회원)

공원은 현대인의 귀중한 안식처이다.

현대의 핵가족에 의해서 추방당한 실버그룹 노인들의 둘도 없는 보금자리이며, 거친 인생항로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여느 나그네들의 휴식처이자 티없이 맑은 동심이 무지개빛으로 수놓아지는 아기자기한 놀이터이다. 즉 그곳은 금세기 첨단과학 문명이 빚어낸 공해에 찌들어져 심신이 극도로 피로해진 현대인의 평온한 안식처이기도 한 것이다.



공원은 만인의 대화의 광장이다.

귀여운 어린 아이들의 참새 같은 재잘거림이 있고, 한발씩 물러나서 세상을 보는 노인네들의 여유있는 인생 관조의 한 담이 흐르기도 한다. 때로는 싱싱한 젊은 연인들이 호젓이 만나 속삭이는 사랑의 달콤한 밀어가, 어쩐일인지 휘엉청 조명등아래 홀로서들 보이지 않는 벗들에게 휴대폰으로 나누는 애정어린 속삭임이, 눈앞의 푸른 공간에 또는 별빛 하늘에 여울지기도 한다. 망국한을 씻었던 순국 선열의 뜨거운 정신이 여전히 스며있는가 하면, 오늘의 조국을 미래지향적이고 폭넓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격을 고양시키기 위한 뜻있는 사람들의 무게있는 사자후가 열변으로 토해지기도 한다. 즉 현대인의 만견萬見이 자율적으로 조화를 찾아가는 대화의 일당一堂인 것이다.

공원은 웅혼한 하나의 생협화음生協和音이다.

수줍은 듯 감추어진 골짜기에선 맑은 물이 조잘거리며 흐르고, 뭇새들은 아름다운 자기 노랫소리에 취해 목청을 돋운다. 이름도 알 수 없는 풀벌레는 밤새도록 온갖 재주를 다 부려 환상적인 주악을 연주하는가 하면, 고추잠자리와 나뭇가지와도 상상 그 이상의 듀엣을 이루기도 한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나 비나 눈이 내리는 때에는 영혼을 흔드는 바람소리 비소리 눈소리를 타고 나무와 나무들도 자신의 손을 들거나 자연스레 흔들면서 춤추는 살랑 소리로 맞장구를 치는 장관을 빚어내기도 한다. 때때로 공원에 들어서면 이러한 코러스가 우리의 귀를 노크하며 발길을 저절로 멈추게 한다. 순수한 자연에서 빚어지는 협화음은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그것보다 우리 현대인의 마음을 한층 더 포곤하게 안정된 곳으로 인도하여 침잠시켜 주는 것이다.

공원은 현대인들의 다양한 사색의 전당殿堂이기도 하다.

벤취나 정자에 앉거나 한적한 공지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고 파아란 하늘아래 무언가 생각에 잠긴 사람들의 조용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다. 그럴 제면 공원이 자연自演하는 코러스에 도취되어 나도 어떤 사람들처럼 눈을 감게 되고 저절로 타임머신을 탄 채 태고를 향한 산책을 나서게 된다.

시계를 장식하는 것은 이끼를 머금은 크고 작은 숱한 태고의 나무들, 나무에 깃을 튼 시조새 그리고 아름드리 태고의 고사리류들, 그지없이 해맑은 산소로 가득찬 태고의 공기, 파아란 원색의 극치인 태고의 하늘, 그 사이를 흐르는 시원한 태고천, 감히 오염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온갖 순수한 태고만이 숨쉬고 있는 신비의 태고시대를 호기심있게 들여다 본다. 말하자면 단군 성조檀君聖祖의 크신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개국이념 아래 우리 민족 고유의 비기인 선도仙道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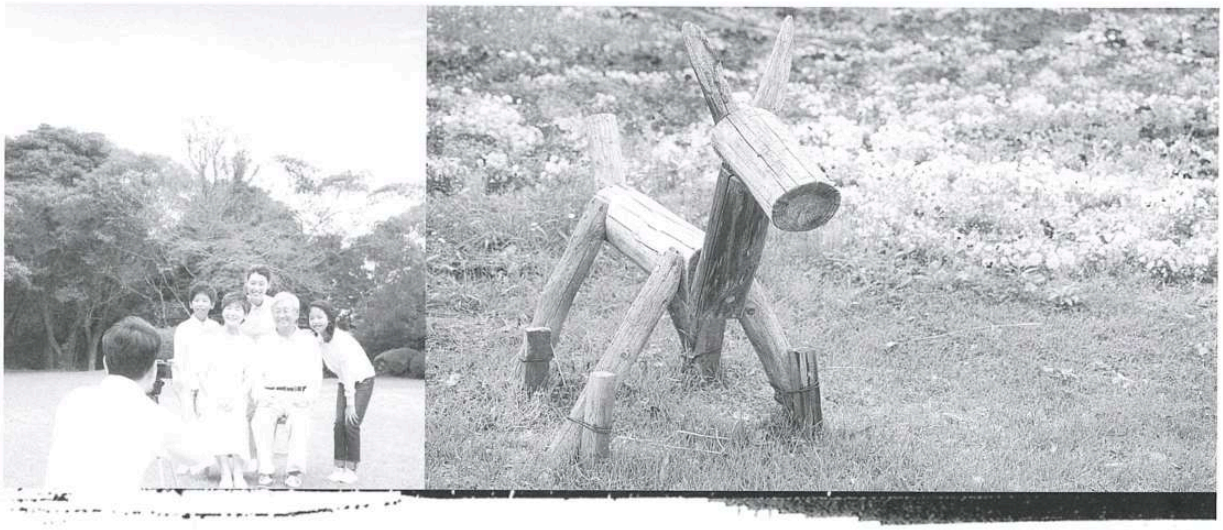
통한 높은 정신수련으로 중원 일대를 실력으로 주름잡은 을지문덕 · 연개소문 등 호탕한 고구려인의 말발굽 소리가 지금도 아스라이 고동쳐 오는가 하면, 심오한 정신세계인 선仙의 대경지에 달하셨던 이율곡 선생이 왜침倭侵 대비책으로 주창하신 10만양병설의 예지가 감지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현대로 내려와서는 소설 ?단丹?에서 예언되고 있는 "미국을 거쳐 태평양으로 그리고 우리 나라로 다가오고 있는 희망찬 3천년만의 대국운"이 새삼스러이 조망되면서, 12년 장기독재를 무너뜨린 4 · 19학생혁명, 동족상잔의 갈등해소의 물꼬를 트는 남북정상회담 실현과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축구에서 4강 달성, 오은선의 히말라야 8천미터8좌 세계최초 여성등정과 국제화대흐름에서의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재선, IT시대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제패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조만간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오기 등이 선명하게 오버랩된다. 아뿔사! 하늘을 나는 현대의 궁전인 점보기 소리에 사색의 꿈이 불현듯 저지당하다니……. 그러나 이처럼 태고에 대한 사색의 산책을 나섰던 것은 매우 감동적이고 흥미로웠던 것이었으니, 그것은 아마도 현대인의, 아니 배달겨레의 후손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의 시원적인 고향을 평상시에도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공원은 공사公私를 초월한 영원한 각자覺者이다.

봄에는 꽃을, 여름엔 신록을, 가을엔 단풍을, 겨울에는 하아얀 눈을 변함없이 연출하면서 불안과 모순과 부조리의 잉태 · 소멸을 반복하는 도회지의 인간 세상과 전통의 전승에 더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지방의 인간 세상 모두를 후덕한 자태로 내려다 보며, 엄숙하면서도 정중한 자세로 각종매체의 침투에 무방비로 번쇄한 두뇌가 돼버린 우리 현대인에게 하늘을 우러러 옷깃을 여미는 청량제 교훈을 주는 영원한 각자의 상을 저만치서 그대로 보여준다. 따라서 공원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신성스러움의 발견과 아울러 매일의 자신을 성찰해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원은 우리 현대인에게 만년건강인의 영상永像이다.

대저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한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리라. 3천년만의 대국운이 오고 있어서인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선진 국제수준 대열에 합류해서인지, 우리나라도 21세기가 진전되자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들 한다. 즉 바야흐로 건강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원래 단군성조가 개국했던 태고시대에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천연환경에서 자연 그대로의



삶을 지속하였으므로 태고의 우리 조상들은 100세 이상의 천수를 누리곤 했다는 사실이 47대에 이르는 단군성조들의 장수연령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현대의 배달겨레 후예들은 지혜로운 안목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야…….

건강하기 위해선 무어니 해도 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공원에 와서는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조깅하기, 달리기, 줄넘기, 배드민턴, 공놀이, 자전거타기, 인나인하기, 축구, 농구, 테니스, 시소타기, 운동기구로 몸풀고 단련하기 그리고 나무에 대고 몸 안마하기 등 각자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스스로들 건강을 평상시에도 관리하는 좋은 행동들을 습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주위의 공원을 벗 삼으면서 말이다. 사사사철 푸르게 자신의 건강상像을 쉬임없이 영원히 보여주는 공원을 현대인들도 부지불식간에 닮아가기 위해서이리라.

공원이 많은 나라는 복 받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많은 공원을 갖는 나라이기를 바래본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공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삶에 다다익선이리라.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근처의 대현산공원을 밤낮으로 자주 가곤한다. 여러 현대인들과 군데군데 붉은 장미울타리와 메타세콰이어로 이어진 1.2 키로미터의 트랙을 꾸준히 돌면서 건강을 챙긴다. 그리곤 그곳에서 현대를 사는 시원하고도 따뜻한 삶의 행복을 느끼곤 한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다 그러 하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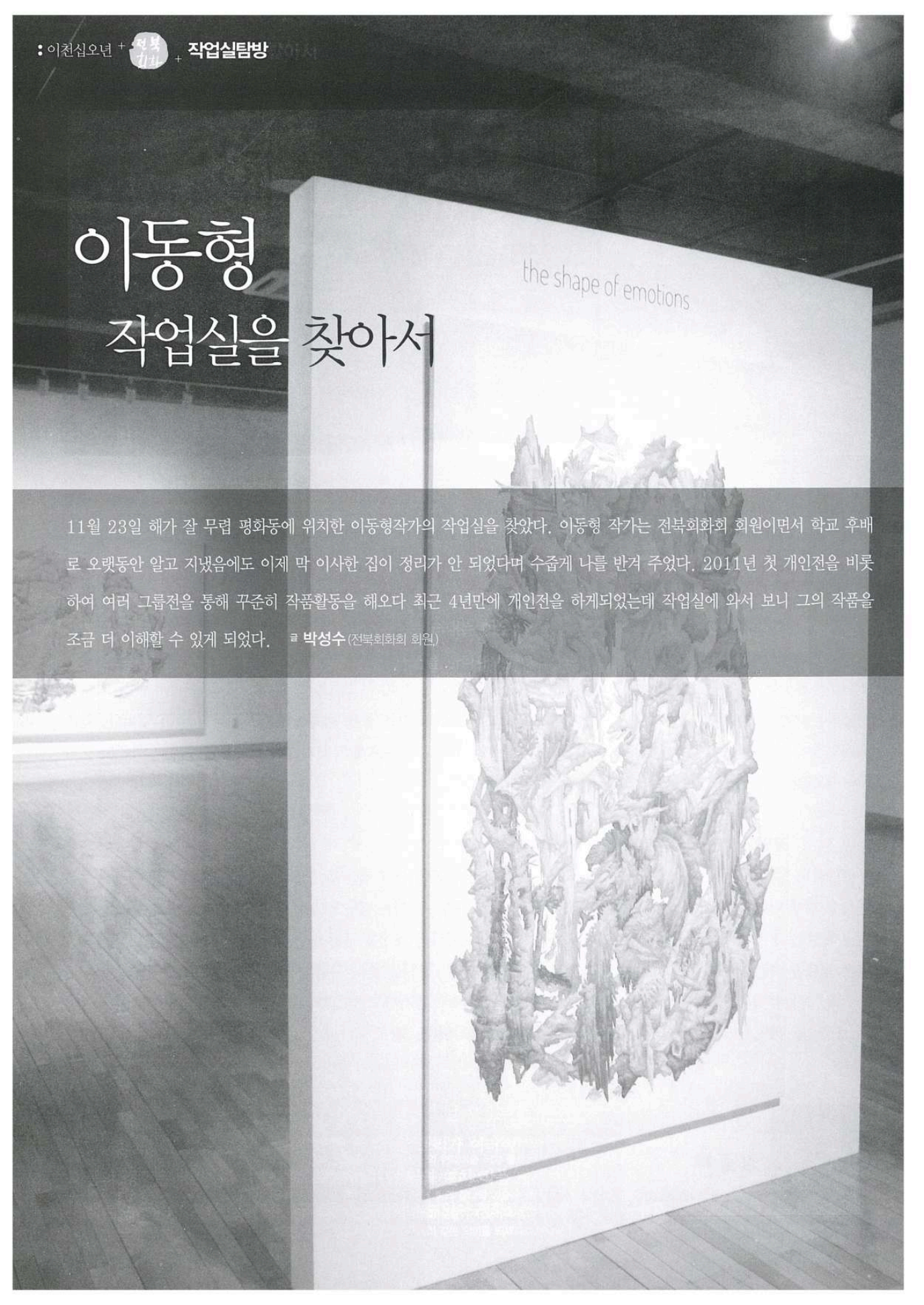
나아가, 오늘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공원을 찾는 현대인이 매우 증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건강 100세시대인 호모 헌드레드시대를 맞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끝



김 종 박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문예한국' 수필부문 추천받아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회원 · 현대수필문학회원, 경기도공무원문학회초대회장(한:고문)을 역임했다. 어느 공무원의 서울이야기1(1998년)의 수필집을 발간했다.

이동형 작업실을 찾아서



11월 23일 해가 잘 무렵 평화동에 위치한 이동형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다. 이동형 작가는 전북회화회 회원이면서 학교 후배로 오랫동안 알고 지냈음에도 이제 막 이사한 집이 정리가 안 되었다며 수줍게 나를 반겨 주었다. 2011년 첫 개인전을 비롯하여 여러 그룹전을 통해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오다 최근 4년만에 개인전을 하게되었는데 작업실에 와서 보니 그의 작품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글 **박성수** (전북회화회 회원)



이동형 작가의 어머님은 화실을 운영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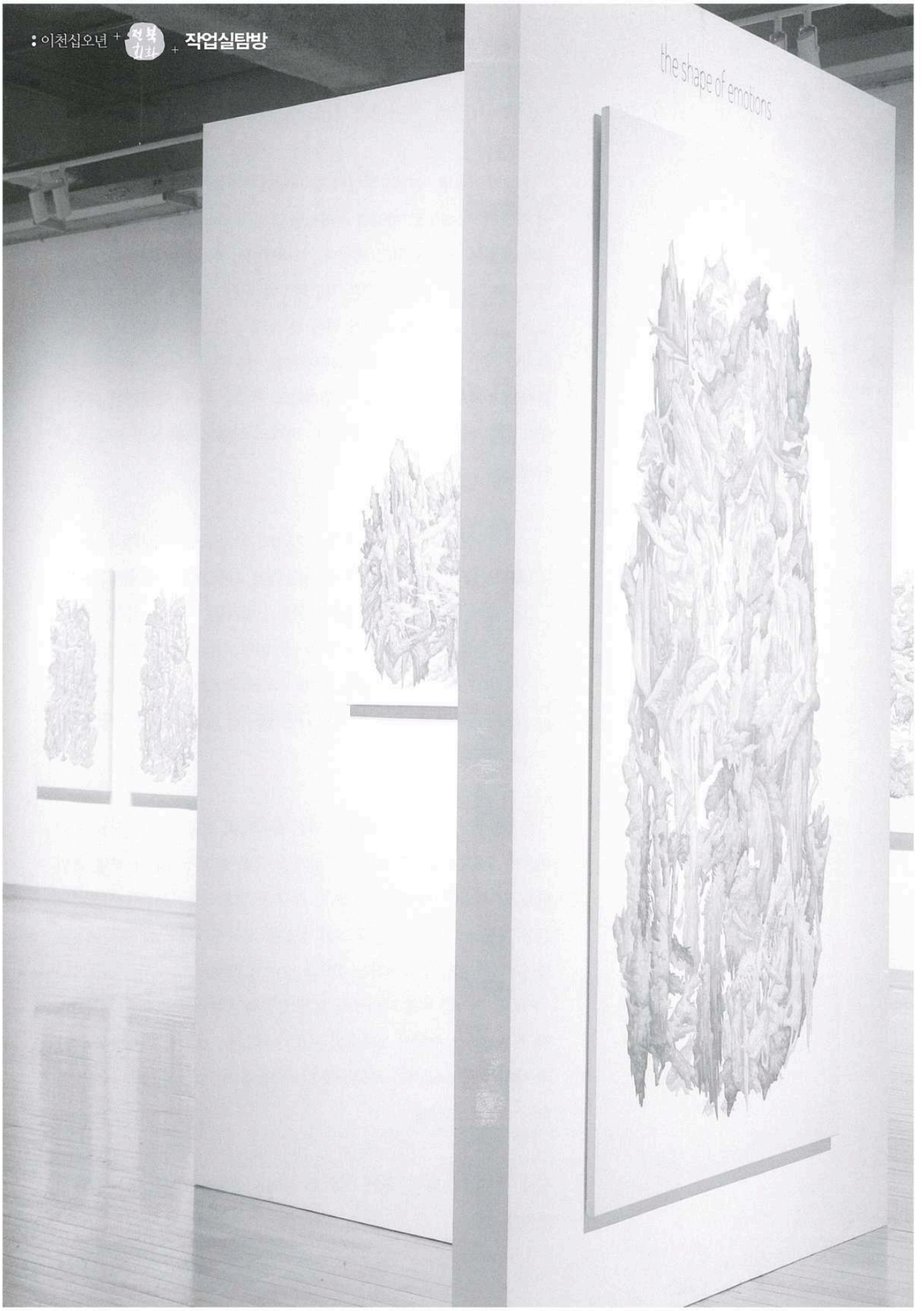
때문에 이동형 작가의 작업실 앞 마당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들이 사람의 키 정도로 빼곡히 자라있었고 한쪽 비닐 하우스에는 여러 난초와 꽃들이 색을 발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동형 작가의 작품에는 나무, 꽃, 괴석, 산들과 같은 자연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환경에서 오는 친숙함이 작업의 소재가 되어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의 친숙한것들을 친숙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고 재조합 하여 때로는 생경하고 때로는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감정으로의 몰입을 유도한다. 작가의 작업노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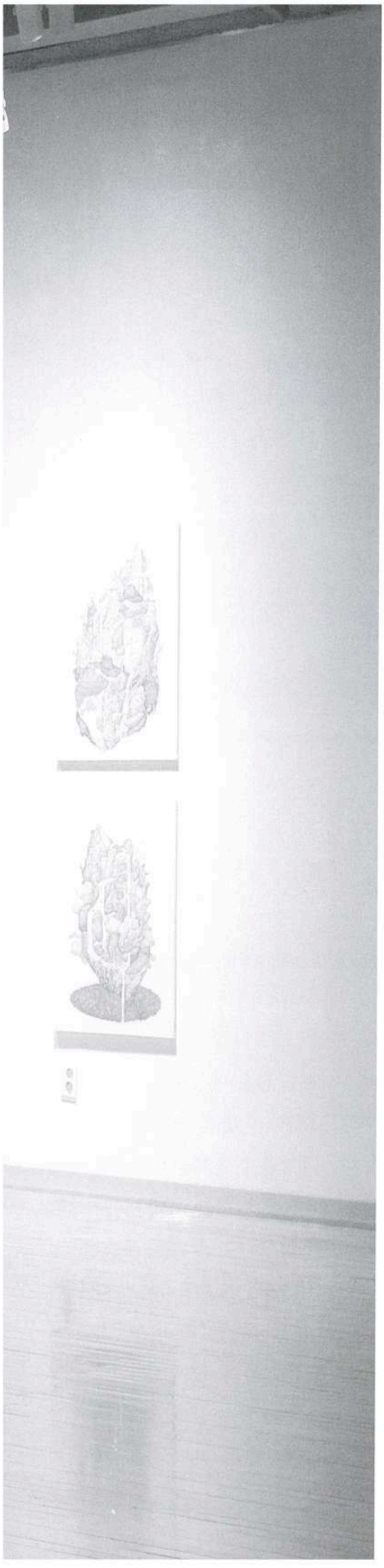
"각기 다른 발원의 유기체와 무기체의 이질적 관계, 무중력 상태의 불규칙한 구성은 작업을 하는 본인에게 자유로움을 제공한다. 규제에 대한 불안한 감정과 경계심으로 비롯되는 사유를 통해 형성되는 도상의 상생은 프레임 안에서만 실현 시킬수 있는 현실을 초월한 탈선이며 삶 속 일탈의 의미를 내포하고, 동시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각하는 작가 본인의 내면 탐구와 감정 상태를 반영, 형상화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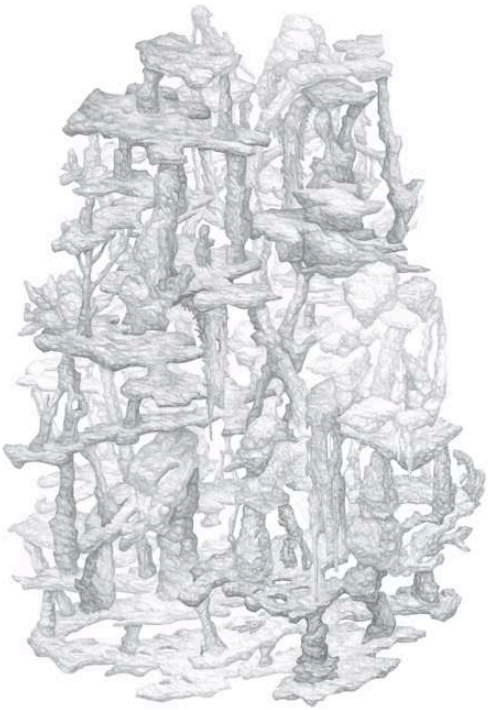
이동형 작가는 학부와 대학원 시절 한국화를 전공하였다. 지금은 캔버스에 오일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작업 형태와 내용을 보면 문인화를 많이 닮아 보인다. 문인화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사군자와 같은 본받을 만한 자연물을 그려 정신을 고양시키기도 하지만 대상을 내면화하여 심중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형 작가는 비록 대나무와 같은 전통적인 문인화의 소재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수없이 보아오던 나무와 꽃, 풀, 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하듯.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터놓을 수 없는 마음속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서른 두 살의 이동형을 알게되어 반가운 저녁이다. 囚


the shape of emotions









참회하는 성 베드로(St. Peter Repentant), 1823-25년경, 캔버스에 유채, 29×25.5cm

프란치스코 고야의 추의 미학에 대하여

예술은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추함도 함께 포함되며
추함은 미적 가치 안에서 아름다움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으로 미의 개념을 추출하기 위해서
부정적 의미를 갖는 상대주의적 속성이다.

글 **최진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미의 역사와 추의 역사를 분리하지 않듯이 고대부터 많은 예술가들은 미와 추위 조화를 통해 유희의 잔인성을 고발하며 비극을 표현하고 있다. 근대에는 바로크, 사실주위, 낭만주의의 문학과 음악, 미술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추가 예술의 세계에 자리 매김하게 된다. 특히 프란시스코 호세 데 고야는 죄수, 병자, 광인, 걸인, 매춘이라는 사회 하층민을 주목하며 비이성적인 존재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거짓, 위선에 대해 우스꽝스러운, 혐오스러운, 그로테스크 미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야의 작품은 추의 미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고야는 스페인 궁정화가였으나 자유주위자로 솔직하고 계몽적인 예술적 삶을 지향했으며 폭발적인 상상의 창조력으로 화풍을 정의할 수 없는 경지까지 끌어올린 화가이다. 독창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자신의 예술관을 통해 700여점의 회화, 900여점의 드로잉, 300여점의 판화작품을 빼어난 기법으로 제작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유화를 비롯한 수채화, 소묘 및 종교화, 역사화, 전쟁화, 생활화, 정물화, 태피스트리 밑그림과 프레스코화에 걸쳐 광범위한 역량을 발휘한 위대한 화가라 할 만하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 작품이 많으며 "추"의 특성 중 야기되기 어렵고 망설여지는 주제를 후반기로 갈수록 악마적이라 할 만큼 투철한 리얼리즘으로 병든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했다. 이런 진보적 정ㅎ신은 근대 세계에서 요구되는 근대적 태도이며 정신분석학이나 초현실주의 작가 또는 표현주위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말 샤를 보들레르는 '악의 꽃 "에서 고야가 "실체가 없는 무형의 것에 대한 애호, 어떤 상황에서 동물적으로 돌변하는 인간의 야릇한 생김새를 그려냈다"고 찬미하였다. 실상 고야만큼 현실 세계의 고통과 슬픔을 꾸준하고 다양하게 그려낸 작가도 드물 것이다. 공포로 채워진 스팩터클, 우울한 만족이나 무시무시한 즐거움을 생산해 내는 것에 대해 매료된다는 것은 추 개념의 핵심적으로 미적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한다. 고야의 작품에 담겨진 우스꽝스럽고 추악하고 비뚤어진 형상들과 등장하는 동물들 또한 눈길을 가는데 기괴한 모습과 행위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도 같고 인간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어떠한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 같기도 하다. 빛과 어두움만으로 표현된 흑백의 극대화와 다의적 의미를 지닌 작품의 주제들을 미루어 보아 예술의 아름다움보다는 "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는 근원적이며 순수한 시초를 가지고 있지않다. 추 판단은 주관적인 것으로 추에 다가서시란 쉬운 것이 아니다. 그 학문적 연구 역사가 짧고 이론가도 많지 않을 분더러 시대나 역사적 시기마다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기 쉬우며 그 가치의 전도의 범주가 많기 때문에 그 범주를 정하거나 형태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학문적으로 처음 추의 개념을 정리한 학자는 칼 로제 크란츠(Karl Rosenkranz 1805-1879)로 그의 추의 형태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다고 본다. 당시 로젠 크란츠는 추를 미에 예속된 개념으로 보았으나 니체는 "미 판단과 추 판단은 전적으로 주관적이며, 라을다움은 대상위 속성일 수 없다. 미 그 자체도 있을 수 없다"며 추와 미를 독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런가 하면 미는 한 때 두렵게 여겨진 것에 대한 거부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철학자 아도르노(T. Adorno 1903-1969)는 말하며 미에서 추가 나왔다기보다는 추에서 미가 나온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추위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것이 된다.



친촌 백작부인, 1800
캔버스에 유채
216×144cm

추하다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아름답다. 예쁘다, 매력있다에 반대되는 것으로 굉장한, 장려하는, 숭고, 희극적, 표현적이다와 같은 가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비교적 오래되 것이기는 하지만 아름다움과 추함의 의미가 위험스럽게도 이중적이고 모호하다는 사실은 밝혀지며 어떤 철학자들은 미학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제거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떻든 여러 학자들의 추에 대한 개념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추는 미와 대립되는 독자적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야의 작품에서 그 세계를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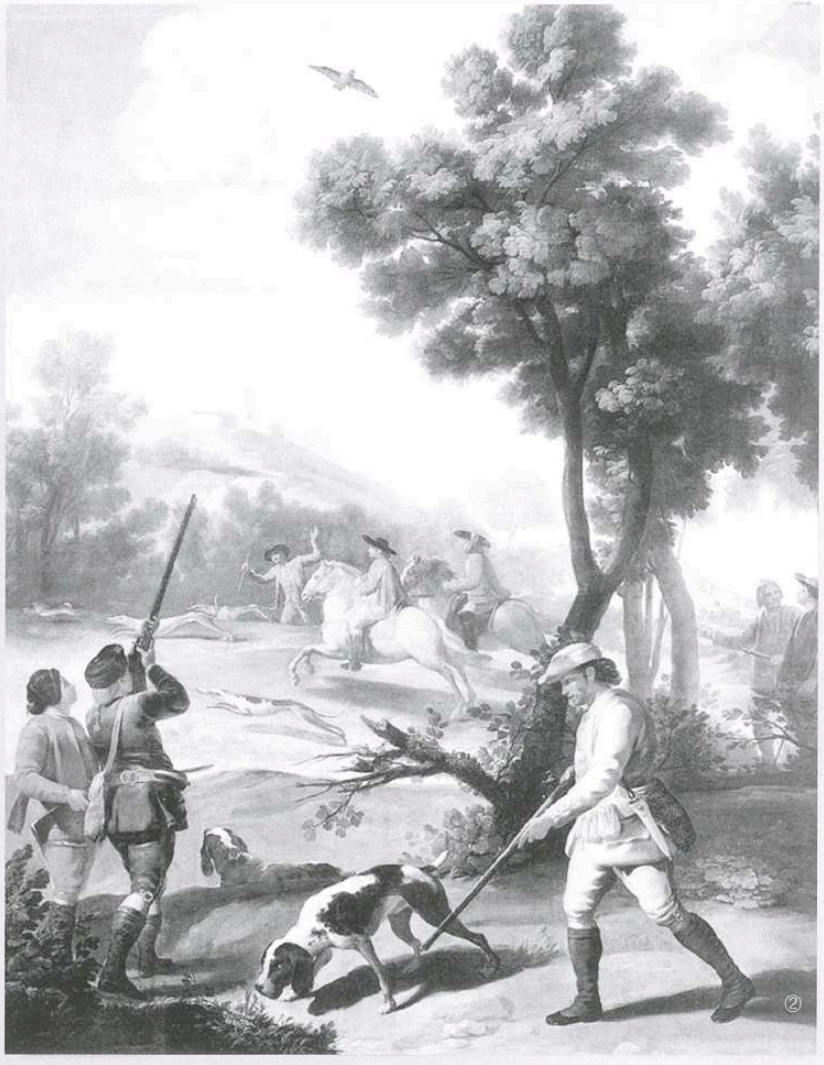
들여다 볼 수 있다.

스페인의 대표 화가인 프란시스코 호세 데 고야(Francisco Jose De Goya 1746-1828)는 18세기에서 19세기를 풍미한 여러 예술사조에 속하는 회화사에 두드러진 예술사조에 속한다기 보다 오히려 다양한 사조에 걸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초현실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계몽적 현실 비판의 정신은 우리에게 삶과 예술의 밀접성과 인간이 가지는 한계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그는 1746년 소 귀족 출신의 어머니와 도금장인 아버지에게서 출생했다. 그리고 어린시절 고야는 "나의 스승은 벨라스케스와 렘브란트 그리고 자연이다." 라고 했으며 벨라스케스의 예술은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그는 20대부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는데 1785년 왕립 아카데미 회화부 부감독에 선출되며 사실상 스페인의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그의 독자적인 상상력일 발휘도기 시작한다. 1788년 발렌시아 대성당을 위해 제작한 배경에서 어두운 존재들이 등장하면서 고야의 색채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시 1789년 궁정화가로 임명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고야에게 정치적 시련을 가져오는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스페인 왕정의 정치적 불행과 함께 개인적으로도 큰 불운이 시작되었는데 1792년 나이 46세 젊은 나이에 병명을 알 수 없는 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력까지 잃었다. 이는 오히려 고야만의 작품 특성을 이루는 시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주문받은 그림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동기에 따라 일련의 작은 그림들을 그린다. 작품에 중대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 두 개의 영혼으로 풍자적이고 때로 잔혹하기도 한 고야 자신만이 즐거움을 위해 제작한 독특한 작품들이 제작된다. 청각상실이라는 헨디캡은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에 전념하게 되는 창조적 열정의 자원이 된 것이다. 특히 1808년 발생한 프랑스와 5년간의 긴 전쟁으로 인한 민중들의 처참하고 힘든 삶들을 작품에 담는 일을 지속하였다. "산저거 엘 마라가토의 체포" 등을 제작하였는데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인물표현과 역사적 감동이 생생히 담긴 이들 작품은 고야의 새로운 작품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또한 1808년에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 프랑스 군대는 저항하는 스페인 민중을 진압하며 스페인 민중을 처형한다. 그는 6년 후인 1814년에 〈맘루크의 돌격〉이라고도 불리는 〈1808년 5월 2일〉과 〈1808년 5월 3일〉이라는 명제가 붙은 그림을 제작하였다. 스페인의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기를 살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내용을 담는 작품을 지속하였으며 1819년에는 "귀머거리의 집"을 구매하여 은둔하기 시작하다 1824년에는 프랑스로 이주하여 최후의 4년을 보르도에서 살면서 많은 데생과 석판화 등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82세의 나이로 1828년에 이곳에서 사망한다.

그의 추의 의식은 그가 살았던 19세기 초반의 스페인 역사상 가장 혹독한 혼란기를 살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외적 상황과 더불어 그의 내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연적으로 다가왔다. 자신의 신념과 상반되는 현실의 인간세계의 암울함과 미래에 대한 환멸과 회의 속에서 지옥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들여다 보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환상적인





❶ **옷입은 마야,** 1802-5, 캔버스에 유화, 29×25.5cm
❷ **The Quail Shoot,** 1775, 캔버스에 유채, 290 x 226 cm
❸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1819-23,
회반죽을 바른 캔버스에 유채, 146x83cm







❹ **1808년 5월 3일,** 1814, 캔버스에 유화, 266×345cm,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❺ **모래 늪의 개** 1819–1823, 회반죽을 바른 캔버스에 유채, 134×80cm,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❻ **마귀의 잔치,** 1821–11, 캔버스에 유화, 140×438cm,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괴물과 악마를 폭력과 공포 속에서 불러냈다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고 사상가로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며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하고 새로운 계획을 착수하여 〈검은 그림〉들을 제작하게 된다. 검은 그림에서 그의 추에 대한 미학을 들여다 볼 수 있는데 붓놀림이나 색채도 묵직하고 원시적이다. 숭고함보다는 천박함을, 광명보다는 죽어있는 공허함을 비언어적인 불확실성을 나타냈다.

〈검은 그림〉들은 전체적으로 사회상을 비판하며 정치인의 타락과 종교인의 부패 그리고 대중들의 의지할 곳 없이 증발해버릴 것 같은 무기력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다. 색이 어둡고 차가우며 침침한 분위기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기괴하고 추한 이미지의 주제가 가진 상징성에서 〈검은 그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이는 새로운 회화나 양식의 시작이 되는 것으로 어떠한 규준도 유용하지 않았다. 이런 화법이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무의식적 내면 깊은 곳의 성찰과 인간의 이성마저 상실된 시대에 진리는 죽고 미의 가치는 추락해버린 결과로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과제의 수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일 이 음산한 검은 그림들을 본 앙드레 말로(1901-1976)가 "현대미술의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평할 만큼의 시대를 뛰어넘는 비관습적 표현, 인간의 복잡하게 뒤틀린 내면심리를 섬뜩하게 묘사했었다. "추"에 대한 찬미라고 불려질 만큼 고야는 새로운 영역을 열었던 작가였다. 囚


⑥

정읍시립미술관
개관기념 기획전시

내적 풍경을 심상으로 표출한 풍.경. 소리전

井문 풍경소리 展

정읍시립미술관(명예관장 이흥재)이 문을 열었다.
31명의 작가가 보여주는 가을날 추억 같은 미술작품이
정읍에 펼쳐지게 되었다.
도내에서는 처음 시립미술관이 탄생하면서 개최는 전시회이다.
인구 10만 정도 되는 소도시에서
처음 문을 연 시립미술관으로 인구가 많은
전주나 익산, 군산에서 눈여겨 볼만한 미술관이 생겼다.

글 **이승훈**(전북회화회 회원)

2015. 10 24(토)~ 12 31(목) 10:00~18:00
<69일간, 매주 월요일 휴관>

주최·주관 정읍시 정읍시립미술관
참여작가 강용면 권순덕 권중수 김병종 김선두 김성실 김창겸 문봉선 박남재 박상화 박현수 석철주 손봉채 송수련 오오근 왕 열 유휴열 이동근 이승훈 이이남 이정용 이종근 이철량 어태길 임 택 임 효 전동화 정선휘 최성훈 하정열 황영성 (31명)
전시장소 정읍시립미술관(정읍사공원 내)
관 람 료 무 료
전시문의 063)539-6420/6418~9 http://www.jeongeup.go.kr

❀ 한지에 그린 수묵에서부터 유화, 아크릴, 조각을 지나 현대 매재와 미디어 매체로 만들어진 설치 미술까지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고 있었다. 1층과 2층으로 이어져 제3전시실과 야외작품까지 구성이 돋보이는 전시였다.

다음과 같이 전시 성격을 전시관에서 밝힌 내용으로도 알 수 있었다.

『정읍-풍경소리전은 정읍시립미술관이 삶의 본질이기도 한 인간적 소통방식의 의미를 자연이 전해주는 풍경소리로 제시해보고 이곳 정읍에서 현대미술로 만나게 되는 새로운 공간과 환경 물질과 비 물질간의 상호작용, 표현의 대상이 되는 우주의 조화로움을 또 다른 자연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해보고자 기획한 개관 기념전이다.

작가들이 보여주는 끊임없는 창조의 세계관은 자연과 일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결합하여 인간의 정서활동을 통하여 재해석함으로서 각박한 현대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에 휴식과 삶의 여유로움을 제공 하고자 하기도 한다. 또한 자연의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물질의 존재를 추상과 구상 양식의 조합방식을 통하여 이야기하며, 현재의 시간은 미래의 시간 속에서 또는 과거의 시간 사이에서 변화되고 진행되는 생명의 순리적 상황들로 묘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의 소리에 주목하여 그 심상의 이미지를 자연 풍경소리로 그려내는 작가들은 또 다른 차원의 정신적 깊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미술평론가 카스타냐리(Castagnary,J.A)가 "예술가의 유일한 목적은 최대의 힘과 최고의 긴장 속에서 자연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과학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 한 바 있듯이 심상의 자연풍경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회화는 미술 역사를 통해 자연에 의미를 두는 새로운 인식과 함께 현대미술의 중요한 한 분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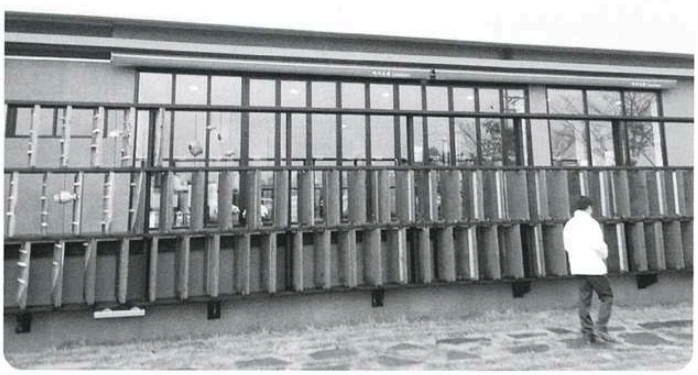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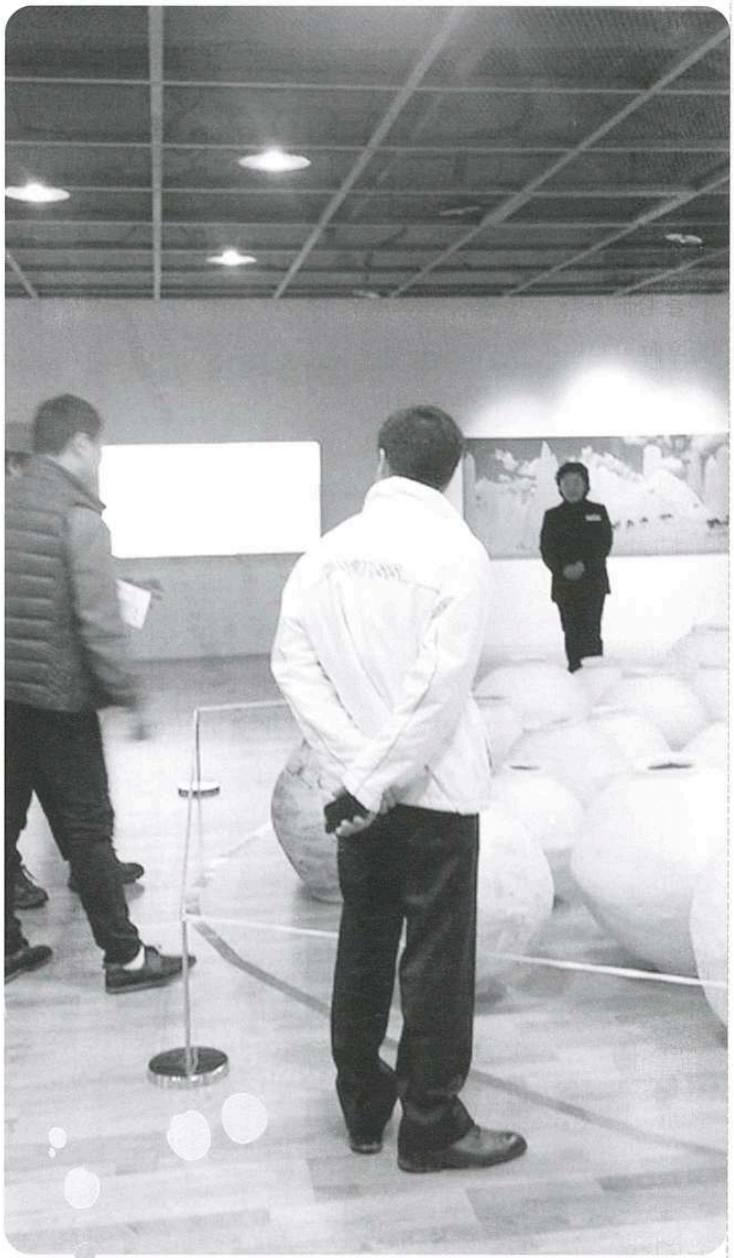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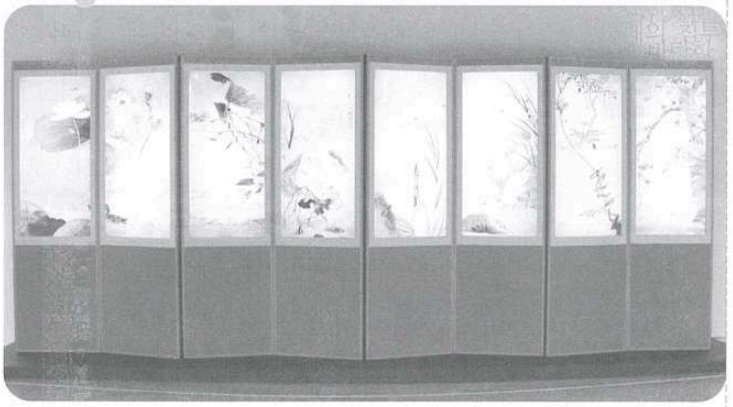


간단히 말하면 자연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작품과 작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을 표출하였다고 보면 좀 가까운 답이 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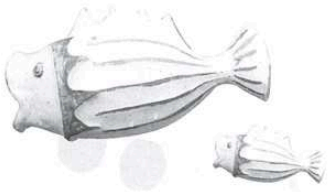
정읍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박성은(전남, 중앙대)이 밝힌바 "자연을 소재로 한 작가들의 작품이 현대미술이긴 하지만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관람하기 쉬운 전시회로 마련되었고 누구나 관람하실 때 좋은 느낌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충분히 흡수해서 가실 수 있는 전시회로 마련했습니다. 또 작가들에게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가를 자연 혹은 심상의 측면에서 표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 선정도 '작가에 대한 자료가 부족 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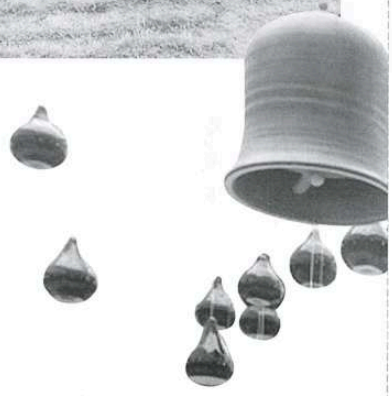




미술관 앞마당에 들어서면 입체 작품이 보인다. 강용면님의 어머니 밥상에 있을 법한 큰 밥그릇이 미술관 마당에 놓여 있었다. 주변 산천에 반사되어 작품을 더욱 돋보여 주었다. 이태길님의 축제는 화면 중앙에 용이 있는 백자항아리가 그려져 있고 배경에는 성덕대왕신종 몸에 있는 비천상과 고분벽화 속 비천, 인동문, 부채 들고 춤추는 모습 등이 담겨져서 한국의 멋이 듬뿍 담겨져 있었다. 문봉선님의 수묵화는 안개에 비치는 연못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이남의 미디어 아트는 담양 대나무축제, 엑스포 등 행사장 마다 볼 수 만나는 대표적 작가의 미술작품이다. 전통 그림과 움직이는 사물을 병풍 형태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김병종님의 생명의 노래 숲에서는 생명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며 새들이 지저귀는 느낌을 받는다. 황영성의 정읍사 가족이야기는 원색의 기호들과 문자 같은 조각들이 열을 맞추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달하 노피 곰 도다샤· · · 정읍사의 가사가 살아가는 우리네 이야기를 토막토막 구성하여 보여주는 듯싶다. 석철주님의 신몽유도원도가 아련하게 다가온다. 손봉채님의 이주민시리즈는 수묵처럼 나무와 산등성이가 겹겹이 세워져서 보여주고 있다. 박상화님의 설치작품도 사계절변화를 설치물에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김창겸님의 물에 비친 풍경과 물고기, 사람 등을 돌확 같은 곳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표현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영상 미디어작품이다. 박현수님의 '물과 바람 소리 서곡' 은 미술관 중앙에 매달아 설치한







설치한 작품이다. 모빌처럼 움직임이 있게 하였다. 송수련님의 '닮다 담다'는 한지로 장독을 여러개 만들어 놓고 벽면에는 수묵 나무 꽃이 핀 것처럼 표현하였다. 권종수님의 렌티큘러 기법(이중 그래픽 효과)의 작품은 옛날 한옥 안 풍경, 산사에 새의 깃털이 날아다니는 표현을 하였다. 정선휘님의 '빛 풍경 속에 스며들다'는 소나무가 서있는 언덕이라고 할 수 있다. 혼자 고개를 넘어 오다가 벼랑이나 밭 귀퉁이에 서있는 소나무 같았다. 여명 또는 노을 지듯 더욱 마음을 깊고 외롭게 하였다. 이동근님의 작품은 민화 같이 진한 색으로 나무에 기어오르는 무당벌레 등을 표현하였다. 유휴열님은 알루미늄과 자동차 도료로 그림을 그린다. 알루미늄 주름 관을 잘라 스테이플러 심으로 연결하고 그 위에 폴리코트를 입혀 채색했다. 소재는 대개 전통적인 것을 살린다. 이번 작품은 단색조 이면서 오묘한 색이 스며들어 있다. 이정웅님은 잡지책을 켜서 붙이고 종이죽과 혼합재료로 바르는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개농을 연상 시킨다. 평면이면서도 질감이 살아나 저부조와 같은 느낌으로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철량님의 수묵화는 수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던 작품으로 자유로운 운필에 의해 시흥을 느낀다. 박남재님, 김성실님, 이승훈(유화)님 등 그림은 고향을 유추하게 하였다.

이번 전시에 나온 작품을 주관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시대의 거울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공모전이 아닌 기획에 의한 작품이라서 안정감 있어 미술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쉽게 이야기 해준다. 스프링을 타고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을 것이다. 囚

참여작가 : 강용면, 권순덕, 권종수, 김병종, 김선두, 김성실, 김창겸, 문봉선, 박남재, 박상화, 박현수, 석철주, 손봉채, 송수련, 오오근, 왕열, 유휴열, 이동근, 이승훈, 이이남, 이정웅, 이종근, 이철량, 이태길, 임택, 임효, 전동화, 정선휘, 최성훈, 하정열, 황영성



이창훈 작가_파라다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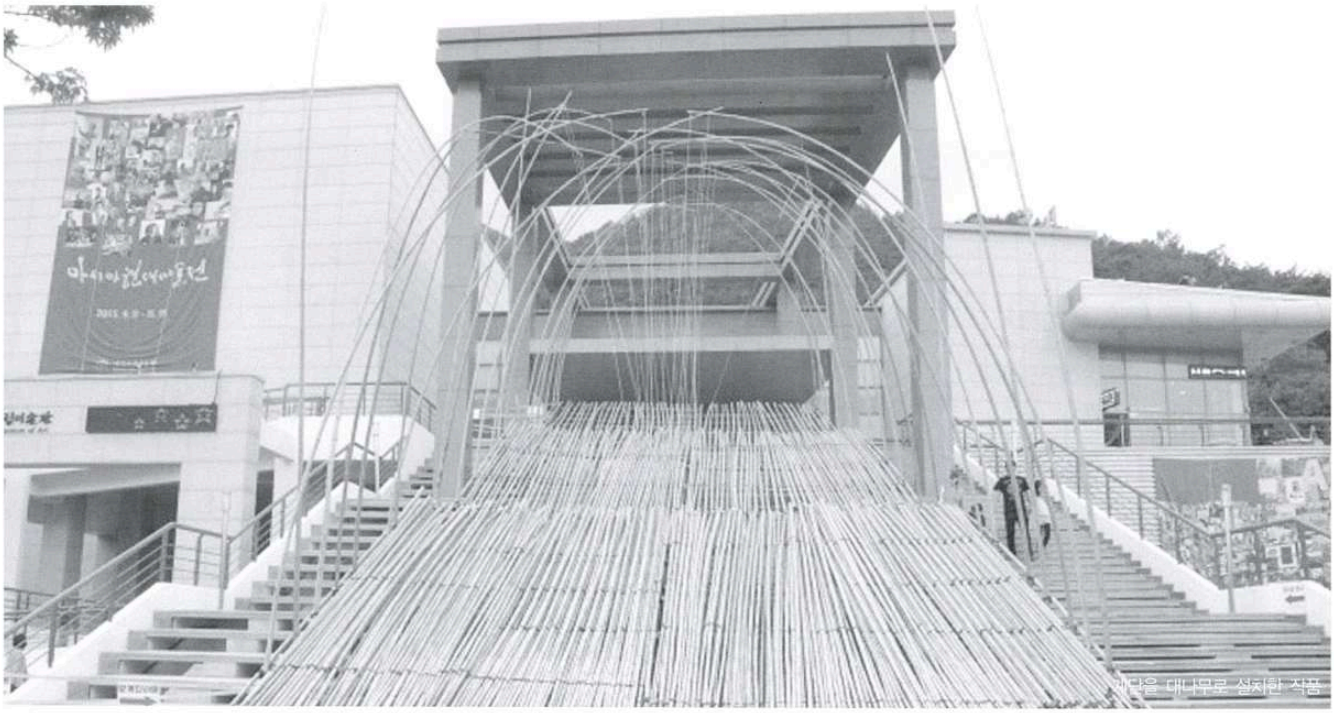
아.시.아. 현대 미술전을 다녀와서

글 **송태정**(전북회화회 회원)

감수성이 짙어지는 계절 가을에 전주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작품을 볼 수 있는 아시아 현대미술전이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현대미술전은 지난 9월 11일에서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이뤄지는 대규모 미술행사로서 아사아권 15개국 약 50명의 작품 70여 점을 도립미술관 전관과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그 중 도립미술관의 작품을 구경하고 왔다.

모악산을 등에 업고 있는 도립미술관건물을 보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다. 〈PARADISE〉 '어? 저런 간판이 예전부터 있었나?' 하는 의심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PARADISE〉라고 크게 쓰여진 간판같은 글자도 하나의 작품이었다. 〈PARADISE〉는 자아나 실존보다는 풍경 속에 개념으로 놓인 작품이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파란색의 LED간판은 마치 역이나 모텔촌의 한 모텔처럼 읽히면서 주변의 견고한 질서들을 녹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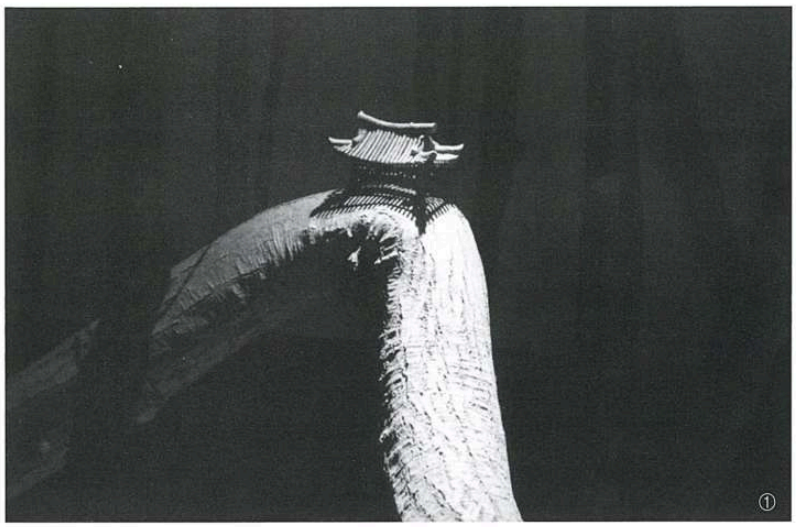
미술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또한 작가의 의도된 작품이 있었다. 계단위에 대나무를 엮어서 표현하였는데 작가가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 궁금했다. 가까이에서는 잘 몰랐는데 전체사진을 찍은 후 살펴보니 가로의 계단과 세로의 대나무가 잘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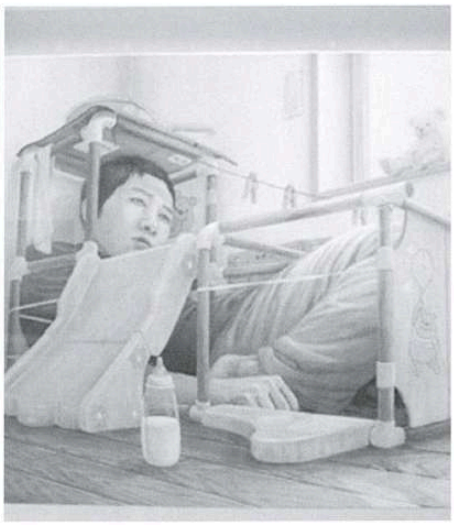
제1전시장을 들어서는 순간, 번잡한 일상의 피로와 공허가 내려 놓여지는 안식처 같았다. 박경식 작가의 나무로 만든 작품으로 전시장 하나를 가득 채웠는데 대나무 숲길에 나무를 줄지어 놓아 전시실이 숲 같았고 나무로 전시되어 있던 작품들에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뼈대와 기질이 있는 나뭇가지는 고상한 운치가 있고, 비어있는 나무집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결코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제2전시장에서는 가장 눈에 띠는 큰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전북청년작가로 뽑혔던 이주리작가는 길이 9m 크기의 야심작 '살다'로 삶 안에서의 절망과 희망, 소통과 소외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였다. 긴 길이를 전시한 작품으로 그 속에서도 끈끈히 지속되는 모습, 힘들어도 인내하고 견디는 역동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다.

또한 나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일본작가인 이시야테츠야작가의 '이유'에 대한 작품의 설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을 볼 수 있었다. '어제 나는 거의 온종일을 침대에서 보냈다. 나는 일어나기 싫어서 거기 그냥 누워서 나를 지금의 상황으로 이끌었던 사건들과의 연결성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기 시작했던 그 정확한 순간들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지나간 시간을 곱씹어 보았다.' 이 글을 읽고 작품을 보니 작품엔 작가의 자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인물이 아기 기구에 들어가 있어 완전히 어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갈구와 슬픔이 애처롭게 드러났다. 왠지 감상하는 내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졌다.

제3전시장에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을 가득 실은 커다란 배는 흡사 우리의 비극인 세월호를 연상시켰다. 인도의 유명작가 스보드 굽타의 설치 작품 '보트(무제)'는 작은 보트에 TV, 주전자, 냄비 등 각종의 폐기물들이 끈으로 묶인 채로 매달려 있었다. 굽타는 2000년부터 대규모의 조각품을 만들고 전형적인 인도의 접시와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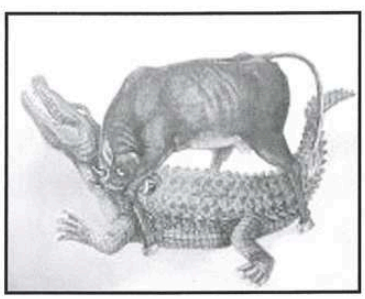


도시락통, 오토바이와 택시를 모티브로 하여 도시화와 소비주의 같은 인도사회의 급격한 현대화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한다. 또한 3전시장에는 수취인 불명의 편지를 써서 병에 넣어 바다로 북을 향해 띄우는 김기라작가의 영상 작품도 있었다. 그리고 커다란 캔버스에 점 하나를 찍은 듯한 명상적 동양 미학을 잘 드러내는 이우환작가의 '다이얼로그'는 점 하나를 찍고 이어지는 점을 보여주며 연결된 느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한국인 얼굴을 하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김아타작가의 'ON-AIR project 043' 사진작품은 15명의 남자 모델을 각각 반가사유상 포즈로 촬영한 후 중첩시켜서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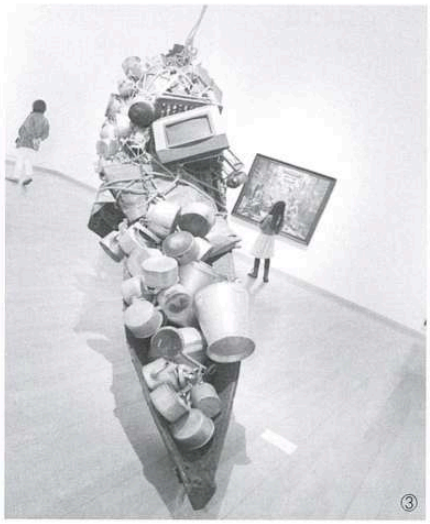
제4전시장에서 현대와 전통 옛 시대를 넘나드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작품도 있었다. '알프스를 넘는 관우'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페러디한 작품으로 사진을 여러 장 붙이거나 그려서 만든 작품이다. 작품 속에 레고도 그려 건장한 관우의 모습 속에서도 레고로서 귀여움과 현대적인 느낌을 엿볼 수 있었다. 도슨트의 설명에 의하면 관우의 얼굴은 작가 자신의 얼굴을 관우 얼굴처럼 보이기 위해 화장하고 꾸며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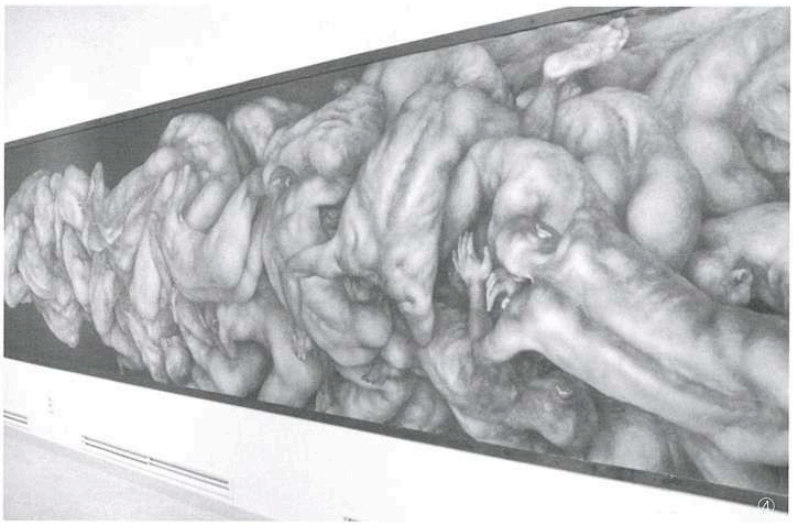
또한 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김남오작가의 나무상자 같은 작품은 전통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새로운 시각적 의미를 부여한 작품이다. 자연사물을 빌어 자유를 얻고 전통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내심 세계를 어두컴컴한 상자에 비유한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작품은 계속 째깍째깍 소리가 나서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궁금증을 자아내던 작품이었다.

라즐리 라일라 만수르 작가 「먹이와 포식자」



제5전시장에 들어가기 전엔 꽝 소리가 날 수 있다는 팻말을 보았다. 조용하던 전시관에서 갑자기 한 번씩 쾅 쾅 소리가 여러 번 났었다. 그 작품의 정체는 타이페이 예술대학 교수인 위앤광밍의 설치 작품 '계시'이었다. 흰색 테이블 위에 오른 백색 자기 그릇들과 촛불이 놓여있어 평화로움과 편안한





상차림 전경을 가지고 있지만, 갑자기 꽝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릇끼리 부딪치고 덜컥이는 소리까지 연달아 들렸다. 행복한 상황에서도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오는 평온과 당혹감을 교차해 보여주었다.



페리얼 아피프라는 작가는 자신의 몸을 초콜릿으로 캐스팅하여 관객이 먹을 수 있게 하였다. 관객들이 전시를 보다가 초콜렛을 잘라서 먹는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갔을 때는 전시시작한지 2달이나 지나서인지 커다란 몸통은 사라지고 작은 머리부분만 남았었다. 또한 방글라데시 작가 나즐리 라일라 만수르는 호랑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사슴, 악어를 공격하는 황소, 뱀을 잡아먹는 개구리 작품들로 사회적으로 강자가 항상 약자를 억압하는 시스템에 대한 반발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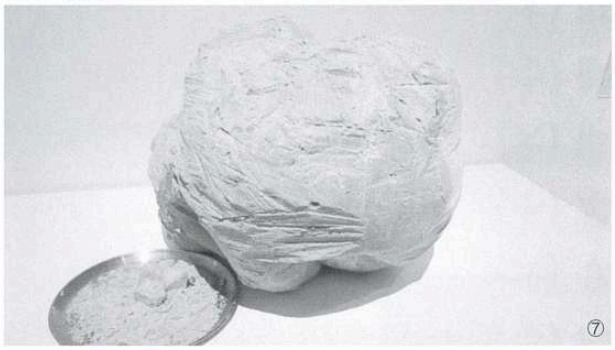
창문밖에 설치되어 있는 사자나조쉬작가의 작품은 짐승의 털로 덮어있었다. 동물의 가죽으로 대상을 장식함으로써 친숙한 대상에서 또 다른 살아있는 대상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친숙한 아기의 모습, 갓 태어난 아기에게 털가죽으로 연출하면서 기괴하고 강력한 매력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이우환 작가의 『다이얼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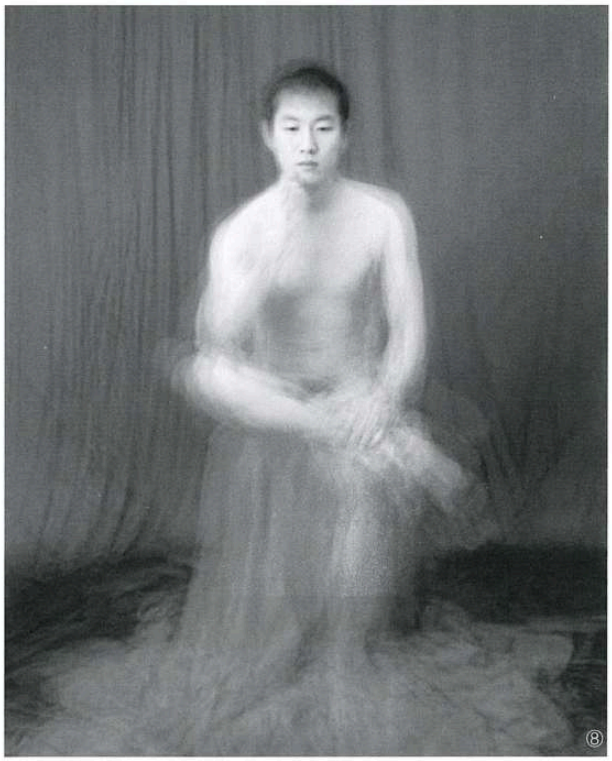
❶ 박경식 작가 『나와 나무』 ❷ 이시다 테츠야 작가 『이유』 ❸ 스보드굽타의 설치 작품 『보트(무제)』 ❹ 이주리 작가 『살다』 ❺ 위앤광밍의 설치 작품 『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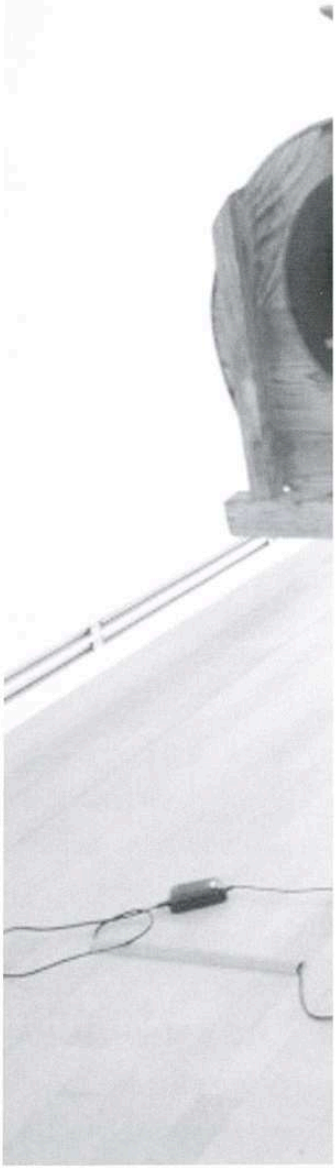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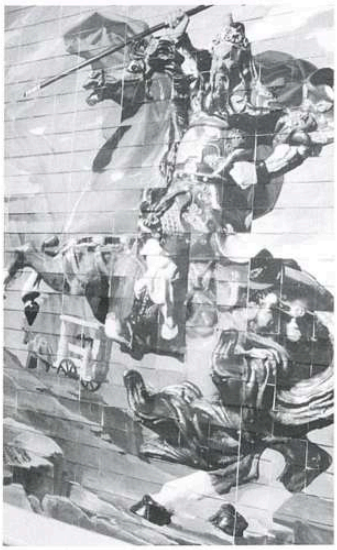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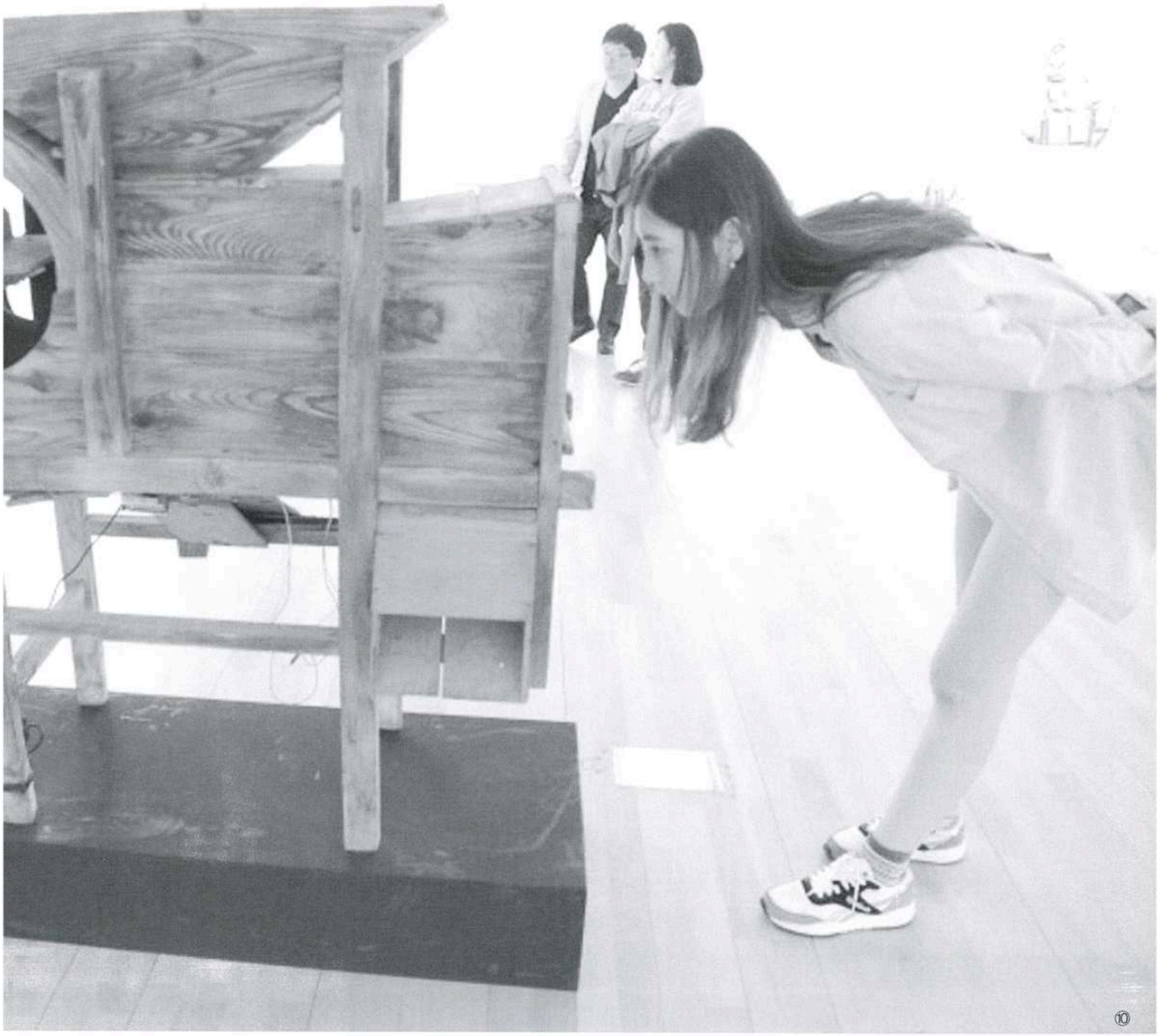

⑦

❻ 사자나조쉬 작가 『가죽과 짐승의 털 이용』 ❼ 폐리얼 아피프 작가 『식별 가능한, 제공 가능한, 못 쓰게 된』 ❽ 김아타 작가의 『ON-AIR project 043』 ❾ 알프스를 넘는 관우중 『레고사진 2』 ❿ 김남오 작가 『돌아본 공간』 ⓫ 알프스를 넘는 관우중 『레고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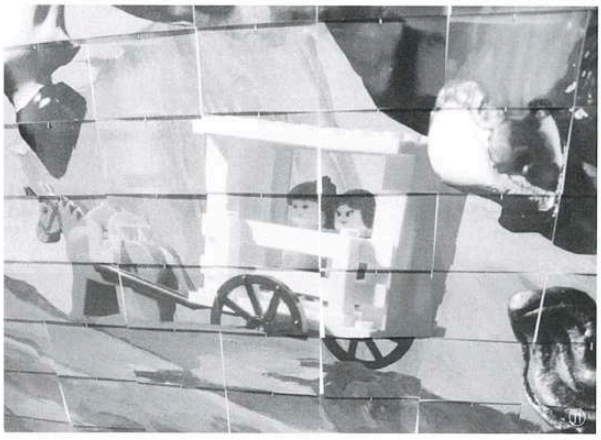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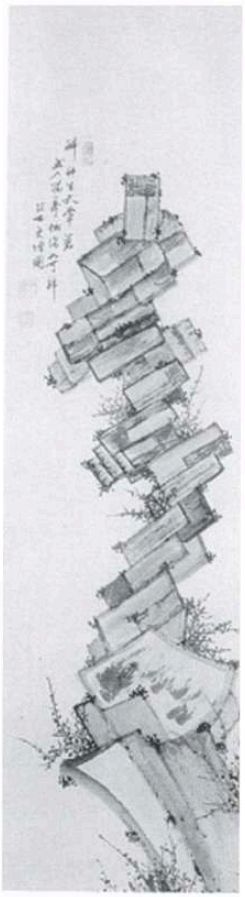


⑩



⑪

이처럼 이번 아시아현대 미술전은 다양하고 특이한 현대적인 작품들이 많아서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아시아가 담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현대미술로 들추어내며 아시아미술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과 담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회화, 입체, 설치, 미디어 등 100여 점에 달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각 작가별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시아 문제와 관련된 특정 이미지들이 담겨 있었다. 작품 하나하나에 투영된 각 작가들의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듣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사상과 생각을 나만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석정(石亭) 이정직은(李定稷, 1841-1910)은 조선 말기와 근대 초기를 살았던 인물로서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예술가이다.

매천 황현(梅泉 黃玹1855-1910) , 해학 이기(海鶴 李沂:1848-1909) '호남의 3걸'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그는 유학은 물론 예학(藝學)과 사상, 성력(星曆), 의학, 풍수, 도서, 명물기수지학(名物器數之學)등 생활과 관련된 많은 학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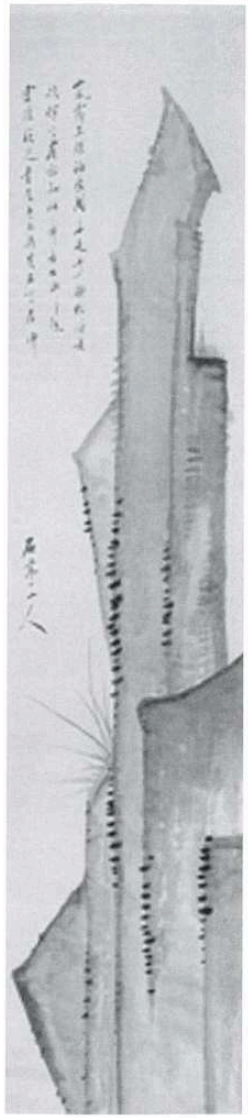
석정

이정직 괴석도(怪石圖)의 조형적 특성

글 **박지예** (전북회화회 회원, 전북대학교 박사)

석정(石亭) 이정직은(李定稷, 1841-1910)은 조선 말기와 근대 초기를 살았던 인물로서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예술가이다. 매천 황현(梅泉 黃玹1855-1910), 해학 이기(海鶴 李沂:1848-1909) '호남의 3걸'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그는 유학은 물론 예학(藝學)과 사상, 성력(星曆), 의학, 풍수, 도서, 명물기수지학(名物器數之學) 등 생활과 관련된 많은 학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28세에 연경(燕京)으로 유학을 다녀 온 뒤 성리학을 기반으로 서양 철학 사상을 익혀 심도 있는 철학세계를 구축한 결과 『연석산방미정고(燕石山房未定藁)』를 비롯한 여러 문집을 저술하였다. 석정은 양계초(梁啓超)의 『음빙실문집(飮氷室文集)』에 근거하여 철학자 칸트와 베이컨을 그의 저서에『연석산방미정고』 소개하면서 유학사상과 비교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을 들어 그가 폭넓은 분야의 학문을 섭렵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그가 남긴 회화작품을 통해서는 시·서·화 삼절에 능한 문인 화가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정직에 대한 연구는 2001년 『연석산방미정고』 가 국역되면서 그의 철학사상과 문학 등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2004년 김제시에서 열린 석정 이정직 특별전(石亭 李定稷 特別展)과 학술대회는 이정직의 서예와 문인화가로서의 예술세계가 처음으로 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시를 통해 그의 작품이 매우 수준 높은 경지이며 또한 그가 전북 근·현대화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제자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실상 근·현대 전북화단의 맥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정직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믿어진다. 이정직은 그가 남긴 유묵에서 볼 수 있듯이 괴석도를 중심으로 화훼, 사군자 등에서 독자적인 회화세계를 펼쳤다. 그는 동시대의 문인화가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소재를 선택하였고 그 구성에 있어서 웅장하며 대담하였고 그 형태가 단순하였다. 또한 묵법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운생동이 넘치며 사의적인 문인화풍을 지향하였다. 또한 괴석을 즐겨 그린 이유에서 그의 회화세계 및 철학적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는 고법을 충분히 연마할 때 창신(創新)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으로 산수화를 거의 그리지 않은 이유도 산석이 산수의 기본이 되니 이를 먼저 충분히 연마하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괴석도 작품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石을 단순한 자연물로 보지 않고 선비들이 겸비해야할 인격체로서 지성과 지혜의 상징으로 보았다. 이정직의 괴석도는 매우 단순화된 형식과 내면의 본질이 일체화되어있어 담박하고 고상하여 전형적인 선비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정직 역시 특별한 돌을 애호하고 찬미해 왔던 옛 선비들의 문인풍류를 따라 이를 소재로 많은 시문과 작품을 남긴 것이다. 이렇듯 한국 근대기에 돌을 통해 독자적인 세계를 펼친 이정직의 회화세계가 그동안 연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정직의 괴석은 실상 전통적 인식의 괴석이라기보다 인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돌들을 관찰하고 회화한 측면이라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관념적이지 않고 실사를 통해 매우 한국적 화풍을 이룩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정직의 출중한 괴석도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한국 근대기에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 대표적인 문인화가로서의 그의 위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석정이 남긴 작품은 돌로만 이루어진 괴석도 8폭과 10폭으로 된 병풍과 함께 사군자. 화훼 병풍 중에 포함된 2점과 낱폭으로 전하는 4점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조사된 괴석도 작품은 도판1 《석정가묵》 첩에 포함된 6점, 이외 사군자 또는 수목의 배경으로 그려진 것 등 30여점이 전해진다. 그리고 《석정가묵》은 이정직이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하였던 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실물 자료로서 의의를 갖으며 또한 『개자원화전』의 수용과 유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작품이다. 그리고 스스로 뛰어난 문인화 능력을 갖고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오원 장승업의 작품을 임모한 ≪오원재현첩≫, 소치 허유의 작품을 임모한 ≪소치모란법첩≫ 등도 남겼다. 또한 중국역대 유명한 화가들의 화법을 터득하여 그림에서 실제 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상 그의 남아있는 유품은 그리 많지가

않다. 이는 안타깝게도 그의 나이 54세 때인 1894년 동학혁명으로 동학군들이 전주성에 진입할 때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유묵들은 모두 그의 말년에 해당되는 작품들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회화세계를 연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의 회화세계 전반을 다루기보다 괴석도를 중심으로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며 사군자와 기타 화훼 등을 살펴 이정직의 면모를 정리해보기로 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먼저 Ⅱ장과 Ⅲ장에서는 석정이 활동하였던 구한말의 시대적 상황을 점검하고 본 논문에서 연구될 이정직 괴석도의 연원을 파악하기위해 괴석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다. 나아가 이정직의 생애와 회화세계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괴석도 이외에 다양한 그의 회화의 형성과 작품의 내용을 살펴 보기위해 그의 문인화에 대한 연원을 추적하고 사군자와 기타 작품들의 화풍을 분석해보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중심연구인 석정의 독창적인 괴석도 작품을 분석하고자 본 장에서는 돌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과 정신에 대해 조사하고 그를 바탕으로 동양에서 어떻게 회화로 발전하였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산수화 속에서 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산수화 속에 담겨진 돌의 정신이 문인화와 민화로 전개되는 과정과 함께 괴석도가 독자적 화풍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 연구대상인 이정직의 괴석도를 형식과 조형적 특징으로 분석하여 괴석을 표현하는 필묵에 대해 이정직 특유의 묘법을 해석하려 하였다. 이러한 작품 분석에 도움을 얻고자 돌에 대한 인식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림에 남긴 시제(詩題)를 통해 그 형성 과정과 흐름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적인 독자성을 성취한 이정직 고유의 괴석도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Ⅴ장에서는 이정직 회화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계승 발전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의 회화세계를 밝히기 위해 그의 학문세계와 철학사상, 특히 그의 성리학과 그가 새롭게 받아들인 서양철학에 대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번역된 그의 문고와 그동안 발표된 몇몇 논문들을 참고하였으며, 더불어 그의 문장론을 통해 회화사상의 근원을 찾아보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그것이 어떻게 회화에 반영되고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괴석도가 어떻게 변화하며 근대초기 이정직이 어떻게 한국적 회화로 꽃을 피웠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이정직의 괴석도가 한국화단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작업이었는지 평가해 보는데 본 논문의 주안점을 두었다.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가장 한국적인 감성을 이끌어낸 괴석도를 현대적 조형어법을 통해 표현하여 독창적인 괴석도를 완성하였다. 이정직은 사실 학문과 문장, 그리고 서화의 세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화가라는데 손색이 없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인 그의 그림 세계가 무엇보다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표현력에 있어서도 조선 말기의



〈도판〉 **이정직 〈괴석도〉**
31×141cm, 이명석 소장



〈도판1〉
석정가묵(石亭佳墨)

가장 출중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사군자나 기타 화훼 그리고 특히 괴석도에 있어서는 조선후기 강세황이나 김정희 등에 버금가는 뛰어난 화가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삶과 예술이 고난의 시대에 작가를 시골에 파 묻혀 홀로 유유자적하게 하였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그에 대한 연구는 유학을 비롯한 철학사상과 서예에서 다소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의 회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었다. 이정직 회화의 조형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로 그가 철저하게 古法에 대해 공부하고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사군자를 비롯하여 여러 문인화 소재들을 공부한 자료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그가 古法을 매우 중요시 한 데는 그의 학문 즉 성리학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특히 그의 사군자 작품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사군자는 문인화의 중심테마였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정직의 사군자는 古法에 의한 필법과 묘법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다 그러나 古法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석하고 연구하였음을 『석정가묵』을 통해 확인하였다.

● 둘째, 그가 이처럼 사군자를 통해 古法을 충실하게 연마한 이후 주변의 여러 草木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사실적 묘사를 하였다는 점이다. 즉 모란, 소나무 등 여러 주요 소재들을 담채를 활용하며 실감나게 표현해 냈다는 점에서 그가 실학정신에 바탕을 둔 실사구시 학문을 하여야 한다는 그의 학문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와 같은 현실의 삶에 바탕을 두고 학문을 하여야 진정한 성리학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실제로 그의 학문의 폭이 매우 넓었다. 그가 농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생활용구들을 만들고 수리하였다 하며 또한 포탄제조 방법까지 기록해 놓은 자료가 남아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 셋째, 이러한 그의 실학에 바탕을 둔 창작의 세계는 결국 그가 한국적 괴석도를 완성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가 초기 괴석을 연구할 때는 옛 사람들의 묘법에 충실하며 널리 유행하였던 중국식 태호석을 공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자원화전』을 통해 돌의 준법을 연구하며 자신의 세계를 정리하였다.

● 넷째, 둥글고 구멍이 많아 신비감을 자아내는 태호석 외에 정학교를 비롯한 구한말에 주로 그려지던 날카롭고 양식화된 괴석도를 공부한 듯하나 따르지는 않았다. 오직 실제에 바탕을 두고 돌을 관찰하며 필묵의 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독자적 양식을 개발해 내었다.

석정 이정직의 작품중 괴석만을 표현하여 선비의 정신세계로 승화시킨 감각적인 현대회화의 모더니즘 형식을 보인다.(도판2) 천년이상의 세월에서도 바위는 버티고 당당한 기세를 보여준다. 그런 괴석을 특히 즐겨 그렸음은 이정직에겐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는 괴석을 마음으로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에 본질적인 특징을 형상에 담아내어 석(石)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격체로서 지성과 지혜로 선비들이 지향해야 할 지덕의 상징으로 바라보았다.

아래 글은 돌을 지혜와 관련지어 절대적 관점에서 비교한 글이다. 그리고 움직임과 고요함, 통함과 막힘, 민첩함과 둔함 등은 돌과 지혜를 서로 비교하고 그 이유를 살펴 봄으로써 이를 통해 상호 호응적 관계로 승화시켜 설명하였다. 이정직의 다음 글에서도 그 뜻을 확인 할 수 있다.

"聖人은 학문에 있어서 文을 귀중하게 여기었다. 공자는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문(文)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라고 하였다. 참으로 문(文)이 귀중하다 하겠다. 비록 그렇지만 君子는 허문(虛文)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자는 문(文)이 질(質)을 앞서면 겉치레만 잘하는 것이다. 지금 三五(이지석의 호)는 바야흐로 행(行)에 힘써 오직 충신만을 급선무로 여기고 문(文)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는 거기에 겨를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文)도 또한 행(行)이니, 어찌 둘로 나눌 수가 있겠는가? 내가 살펴보기에 아름다운 돌은 반드시 채문(彩文)이 있는데 그 문채(文彩)는 본래 자연스러움에서 나온 것이어서 강제로 엄습하여 취한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행할 뿐이다. 만약 그것을 강제로 행한다면 천착(舛錯)한 것이 된다. 나는 삼오(三五)에게 강요해서 문을 을 따라서 문(文)과 행(行)으로 하여금 서로 연유하야 생겨나는 것이 마치 지혜와 석의 천착(舛錯)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그 자연스러운 관계처럼 하고자 한 것 뿐이다.[1]

옛 문인들이 그러하듯 이정직도 학문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품성을 수련하여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가고자 하였다. 이정직은 인간의 본성과 심령에서 우러나는 정감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감상해 왔으며 많은 작가들의 작품과 이론을 섭렵하고 그것을 조화, 절충하려 노력하였다.[2]

이글에서 그는 돌에는 반드시 문채가 있다고 하였다. 문채는 학문을 통해 얻어지는 선비들이 교양과 태도를 말한다. 돌에는 이 처럼 도덕과 교양을 겸비하고 있는 선비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러움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억지로 얻고자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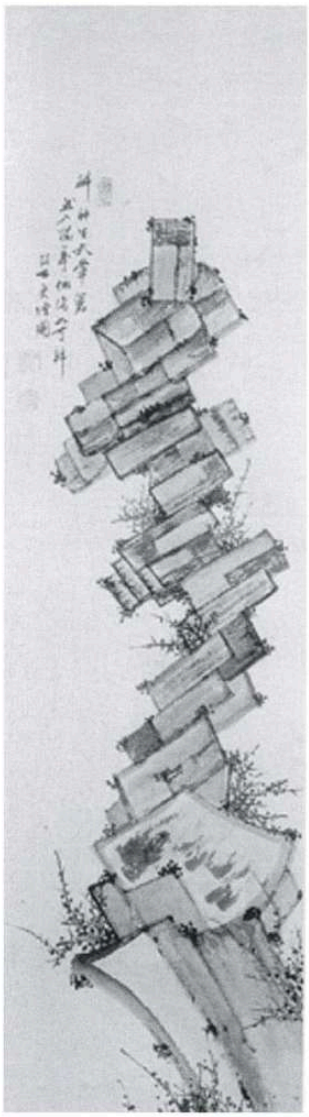
이정직이 돌의 무구한 생태적 특성에 비유하여 돌과 같은 자연스러운 덕성을 강조한 것이다. 즉 돌을 자신에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돌이 고매한 선비들에 비유된 것은 그 역사가 매우 길다고 할 수 있다. 이정직 역시 이러한 선비적 태도와 전통적 인식을 그대로 공유한 것이며 나아가 그 역사성을 누구보다 실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도판2〉 **이정직 〈괴석도〉**
31×140.5cm, 이기석 소장

1) "이정직,[연석산방문고] Ⅱ,p. 558.聖人之於學 貴乎文 子曰 文王旣沒 文不在玆乎 允矣哉 文之重也 雖然 君子不貴虛文焉 故曰文勝質則史 今三五 方施諸行 惟忠信之是急 其於文 必曰 我不暇焉 而文亦行也 何可二焉 吾觀石之美者必有文 其文固發於自然 非强襲之也 人之於智 亦然 行其所無事而已 强爲之則鑿矣 吾非强三五以鑿乎文 要亦順其自然 使文與行 相因而生 如智之於石云. ","智石記」.

2) 김도영, 「石定 李定稷 書畵의 文化財的 價値 硏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4), p. 137 참고.



〈도판3〉
이정직 〈괴석도〉 팔곡병풍 중
30×107.6cm, 이종석 소장

이정직의 작품중 중첩과 반복으로 이루어진 대표작품(도판3)이다. 이 작품은 그의 그림 중에서도 직사각형모양의 반복된 형식은 이정직이 괴석을 공부하는데 많은 실험과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돌의 형태에서 많은 변화와 함께 괴석의 색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해주며 한편으로 전형적인 괴석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석정의 강직한 성품과 그야말로 전통적인 괴석의 특색이 잘 드러난다.

말하자면 괴석은 괴기하고 어떤 특별한 상상력을 자아내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괴석의 형상이 여느 작가들과 차별화 된다.

직사각형의 6면체들을 겹겹이 쌓아 올려 돌이 반복적으로 중첩된 것으로,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고 있는 돌이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다. 돌이라기보다는 불안하게 쌓아 올려진 벽돌의 모습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마치 어떤 변형화된 조형물처럼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보아왔던 괴석들에 비해 한층 새롭고 창의적 형상이다.

이는 그동안 전통적인 문인화가들이 그렸던 작품들과는 매우 다른 형식이다. 마치 커다란 괴석이 작은 6면체로 분석될 수 있다는 입체파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그림은 화면 하단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사각모형의 블록 쌓기처럼 쌓아 올렸다. 실제 있을까 한 형태를 보이는 괴석의 모양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맨 윗부분은 우리나라 민화에서 흔히 나타나 듯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역투시법을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 작품의 맨 윗부분의 육면체도형이 이처럼 역투시로 보여줘 형태가 더욱 색다른 인상을 준다.

(도판4)은 반복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괴석은 비슷한 크기의 도형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며 서로 엉겨 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비바람에 닳아 둥글둥글하게 뼈만 남은 바위에 몇 그루의 초목이 곁들여져 곳곳한 자태가 드러난다.

화면 오른쪽으로 바짝 세워 배치된 구도는 괴석의 오른쪽 방향으로 화면 밖의 모양이 연상되어 더 웅장하고 큰 형상을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왼쪽은 부분적인 여백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다른 작품이 괴석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였던 것과는 다른 형식을 보여 주고 있어 흥미롭다.

오른쪽 화면에서 마름모 모양의 괴석이 불규칙적으로 쌓아 올라가 마치 거북등처럼 보이는 단순한 모습이다. 이런 단순한 형태의 변화를 위해 왼쪽하단 밑 부분을 요철로 표현하였다. 작은 덩어리 하나하나에 마치 수염이 난 듯 잔풀들이 무성하여 괴석의 딱딱함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감촉의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괴석도 에서 흔히 나타나는 묘법으로 짧고 간단한 작은 나무를 돌 사이사이에 곁들여 있어 거대한 괴석이 주는 단조로움을 풀어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왼쪽하단의 볼록 들어 간 공간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한 2송이의 꽃은 괴석의 당당함과 미묘한 조화를 이루어 화면에 재미를 더해준다.

이 작품은 여타의 이정직 괴석도에서 보는 담대하고 침착한 운필과는 사뭇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 이채롭다. 즉 돌의 형태는 매우 육중하고 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난 잔 풀들은 매우 빠른 속도와 거친 붓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작은 덩어리를 그린 윤곽선에 농묵의 태점 과 풀을 그린 선들이 어우러져 다소 경직되고 둔탁한 느낌을 주고 있다. 반면에 바위 아래 꽃과 잎은 매우 담백하고 안정된 필치로 고요함마저 느껴지는 것이 색다른 대비를 느끼게 한다. 이정직이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실험하며 괴석을 그렸다는 생각이 든다.

화제에서 느껴지듯 세월의 깊은 흐름과 자연의 섭리에 대한 찬양을 시와 함께 필묵을 통해 표현해 내고 있다. 이 작품은 소박하면서도 웅장한 괴석이 주변의 잔풀들과 함께 어우러져 깊은 맛을 주는데 화면의 장식과 돌의 강한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괴석을 습윤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통해 노 선비의 진중하고 여유로운 삶을 상징하고 있는 듯하다.

하나의 주제가 여러 가지 모양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되며 괴석을 사의적(思義的)으로 접근하는 작가 내면의 철학적인 성찰을 하고자하였다.

다음 작품은 마치 거북등처럼 보이는 형식에 부드러운 먹빛과 형태 표현으로 괴석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다양한 주변의 초목들과 조화를 이룬 (도판4)과 유사한 형식을 보인 또 다른 작품(도판5)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역시 마름모 형태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며 커다란 몸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두 작품은 바위를 표현하는 형식에서 매우 닮아 있다. 즉 마름모 모양의 작은 면들의 조합으로 마치 거북등처럼 엮어져 있는 공통점이 있다. 어쩌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판4)은 수직으로 묵직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돌의 양감이 크게 드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묘법에서도 투박하고 매우 오래된 돌로서 마치 이끼가 닥지닥지 늘어 붙어있는 모습이다. 어찌 보면 시골의 투박하고 거친 농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김제 시골에서 자주 마주치는 어떤 농부를 상상하며 그 표상을 그렸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돌의 품안에 꽃을 그려 넣은 그의 재치가 인상적이다. 그에 비해 (도판5)는 필세가 가볍고 돌의 형태도 마치 가녀린 여인의 허리를 보는 것처럼 가볍다. 앞선 작품이 남성적이라면 이 작품은 매우 여성적인 부드러움이 강조되어 있다. 즉 이 작품은 형태의 절제된 표현과 담묵의 노련함이 돋보이는데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비스듬하게 향하는 형세이다. 마치 젊은 여인이 요염하게 허리를 틀고 걷는 형국이다. 돌의 머리는 마름모로 각진 모양으로 하늘을 향하게 하여 앞의 그림과 비슷한 끝 모양을 하고 있다. 볼록하게 불거진 마름모형태의 모양이 얇고 길쭉하게 그리고 때로는 작고 넓은 면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형태들이 서로 엇갈리며 교차되어 변화와 긴장을 더해 주고 있다. 허리가 잘록하여 날렵해 보이고 간결한 느낌이 강한 점이 특징이다.



〈도판4〉
이정직 〈괴석도〉 8곡병 중
31×140.5cm, 이기석 소장



〈도판5〉
이정직 〈괴석도〉
27.8×137cm, 이종석 소장

돌의 피부는 밝고 하얗게 처리하였으나 윤곽선을 따라 가벼운 운필로 음영을 표현하였다. 또한 작은 풀들을 빠르고 곧은 담묵의 선으로 곁들였다. 이 그림에도 역시 간소한 형태의 작은 나무가 바위에서 자라난 모습을 그렸는데 그 비중은 매우 가볍게 하였다. 다만 하단 왼편의 삼각형 모양의 여백에 가볍고 부드러운 선과 담담히 찍은 점들이 엮여져 풀인 듯 나무인 듯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고 서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돌이나 풀들이 매우 부드러운 먹빛을 하고 있는데 다만 돌 허리를 타고 둥글게 혹은 날카롭고 짧은 선 모양의 태점 들이 장식적으로 다가온다.

전반적인 화면의 짜임새는 매우 간결한 것이 특징인데 괴석과 주변 엷은 잔가지가 하나의 뿌리를 둔 것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고, 괴석의 마름모 끝자리와 중간 중간 들어간 농묵의 태점과 잔풀은 흑백의 절묘한 대비로 장식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한층 세련된 필의 운용은 석정의 시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바위의 기이한 형상에 멋스럽고 단정한 괴석의 정취를 자아낸다. 다만 이 작품에서는 붓질이 빠르고 또한 날카로운 것이 두드러지는데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가까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날카로운 내면을 갖고 있는 여성처럼 느껴진다.

(도판6) 에서는 이정직의 괴석도 중 반복과 중첩의 형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매우 이색적이고 새로운 형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의 괴석의 표현은 참으로 다양하고 파격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유감없이 그의 실험적 모습을 읽게 한다. 바위는 마치 신기루 바람이 일어나 듯 회오리치는 모습이다. 둥근 돌이 반복적으로 중첩해 쌓아 올려 괴기스럽고 요란한 돌의 형태가 주는 이미지는 매우 낯설고 강렬하다.

거세고 힘이 가득 실린 운필이 또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읽혀진다. 화면 하단 왼쪽에서 피어오르는 형국인데 하단에 한 덩이의 커다란 돌이 받혀있고 마치 돌탑이 쌓아 올려 진 듯 둥근 회오리를 일으키며 상승하는 모습이다.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어떤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 같기도 하다. 실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형상이 아닐 수 없다. 서있는 모습이 매우 불안한 모양으로 하늘을 향해 피어오르는 모양이다.

태호석의 특징인 구멍뚫인 모습도 보이는데 어떻든 그 형상은 어떤 축원을 위해 쌓아올린 탑 같은 모양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표현은 돌의 실제적 형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전통적 표현에 바탕한 독창적인 회화적 표현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괴석은 특히 아랫부분이 가늘고 왜소하며 머리 부분이 더욱 크고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어 더욱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 이정직의 여느 괴석도의 표현과는 매우 대조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괴이한 모습의 돌과는 다르게 화면 하단에 단아한 자태를 뽐내며 수줍은 모습의 국화가 괴석 뒤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다. 단정하고 사실감이 살아있는 국화의 모습이 괴기한 괴석의 위태로운 모양과 대비되어 오묘한 균형을 이룬다. 그가 문인화의 여러 초목들을 사생하듯 실감나게 그려낸 모습이 이 작품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화면 중반의 둥근 바위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힘이 강조되어 큰 형상을 이룬다. 상단의 회오리는 영락없이 태극(太極)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작품은 태극 모양으로 점차 변화되는 과정에서 불안전한 타원형의 돌들이 서로 엉키며 조화를 이루어 마침내는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준다.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교합하여 만물을 낳고, 음양이 교합하여 남녀를 낳게 된다."[3]고 했던 동양의 철학을 화면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실제로 그는 생명의식과 심미적 문화의식의 뿌리가 되고 있다."[4]고 말하고 있다.

이정직이 이처럼 자신이 가졌던 동양의 태극사상에 담겨있는 자연의 생명력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돌 허리 곳곳에서 자라고 있는 풀들이 마치 햇살이 퍼져나가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는 모습에서 그의 이러한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음양의 충돌을 의미하는 태극모양의 괴석에서 새로운 자연이 피어나는 모습을 활짝 핀 꽃과 풀들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의 어떤 빅뱅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자연의 기운이 폭발하고 있는 의미를 그리고자 한 것일 것이다.

어쩌면 그는 외세에 의해 나라가 소멸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민족의 새로운 기운을 기원하는 모습의 자신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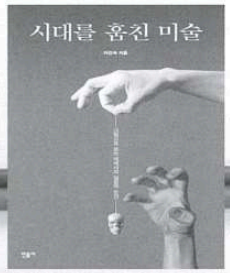
이처럼 이정직은 구한말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혼란한 시기에한국적 화풍을 정립한 가장 뛰어난 작가로 인식될 만큼 괴석도를 연구하고 집중하여 그렸는데, 아마도 이는 괴석에서 자신의 모습 혹은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괴석과 자신을 일치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정직의 괴석도는 그가 격랑의 시기를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돌에 자신을 비유하고 또한 삶의 의미를 돌에 의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정직의 학문과 서화는 그의 제자들 통해 전북 근. 현대에 이어지고 있다. 그의 서화는 두 갈래로 이어졌는데, 특히 학문과 글씨는 제자 송기면과 그의 아들 송성룡으로 이어졌다. 한편 조주승, 박규환, 유영완등을 통해 괴석과 사군자가 이어지며 사실상 전북 근.현대 문인화가 꽃을 피웠다. 19세기 후반에 전북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정직의 활동은 매우 큰 족적을 남겼다. 끝으로 이정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괴석도를 통해 큰 교훈을 남겼다.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계승 발전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이정직의 유작과 자료를 검토해 보면 조선 말기 대표적인 문인화가의 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 되었어야 한며 그의 학문과 예술의 철학적 경지가 작품에 녹아내려 전북의 수준 높은 미술문화 발전에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20C 전북화단을 풍요롭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조선말기 문인화가의 한 사람으로 새로이 자리매김되고 있으나 더욱 많은 작품이 발굴되어 연구되길 바란다.



〈도판6〉
이정직 〈괴석도〉 8곡병 중
30×107.6cm, 이종석 소장

3) " 太極生陰陽, 陰陽之交生萬物, 陰陽之交生男女??,「繫辭傳 下」5章, 『周易』
4) 김도영, 석정 이정직 서화의 문화재적 가치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교 박사논문 144p참고 및 주석 재인용 2014.

읽을 만한 책



시대를 훔친 미술

〈이진숙 저 / 민음사〉

저자 이진숙은 서울대학교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러시아를 여행하다가 트레차코프 미술관에서 만난 작품들에 큰 감명을 받아 평생의 업으로 여겨 온 문학을 등지고 미술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인간의 그리고자 하는 욕망에 힘입어 굵직굵직한 세계사적 사건들이 차곡차곡 회화에 담겨 왔기에, 몇 장 명화를 주의 깊게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히 격동의 세계사를 짐작할 수 있다. 유미주의와 예술지상주의 이전,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영역으로서 회화를 감상하고 독해하는 길을 안내하는 『시대를 훔친 미술』은 지엽적인 미술사가 아닌 총체적 세계사를 소개해 줄 것이다.

나의 조선미술 순례

〈서경식 저 / 최재혁 역 / 반비〉



'한국적인 작가'로 꼽은 정연두 작가, 위안부 문제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여성과 재일조선인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눈 윤석남 작가와 신윤복 회화에 대한 색다른 이해까지 조선의 미술가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며 예술이란 무엇인지, 우리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사유와 질문을 던진다.
〈나의 조선미술 순례〉는 책을 펴기 전부터 많은 궁금증을 주는 책입니다. 서경식 지음, 최재혁 옮김? '한국 사람이 지었는데 왜 옮기는 사람이 필요했을까?' 정연두, 미희, 윤석남, 이쾌대, 신경호? '어떤 작가들이지?' 모르는 것투성이에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이 책에 길을 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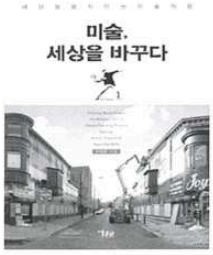
일본으로 떠나는 서양 미술 기행 세계 최고 명화 컬렉션을 만나다

〈노유니아 저 / 미래의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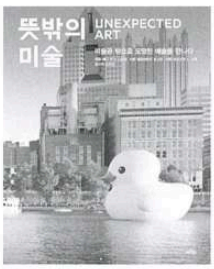
고흐부터 키스 해링까지, 서양 미술관의 천국 일본!
전시 문화가 발달한 나라 일본. 기획되는 전시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이 보장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찾고 있지만 일본 여행코스에 미술관을 넣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한때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술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했던 일본은 미국이나 프랑스 못지 않은 미술관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일본으로 떠나는 서양 미술 기행』은 일본에 있는 서양 미술관을 소개하는 책이다. 모네, 르누아르, 고흐 등 인상파 화가들의 컬렉션을 갖춘 '도쿄 국립서양미술관', 고갱, 마티스, 세잔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지방 소도시의 '오하라미술관' 등을 소개하고 다양한 사진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했다.

예술가의 방

〈이태호 저 / 미술문화〉



인간적인 세상을 만드는 진짜 미술의 힘!
미술관에서만 존재하던 미술이 세상 밖으로 나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미술, 세상을 바꾸다』는 미술이 사람들 삶으로 찾아가 개인과 공동체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온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다. 좋은 미술이란 홀로 고상하고 어려운 존재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감각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살을 다시 각성하게 해주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미술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사회를 보다 성숙하게 만드는지 진짜 미술 이야기를 만나보자. 미술과 시대정신과의 관계까지 밝히며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국 미술의 현재위상과 미래 방향을 짚어준다.



뜻밖의 미술 미술관 밖으로 도망친 예술을 만나다

〈저자 제니 무사 스프링 외 / 손희경 역자 / 아트북스 〉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순간, 익숙했던 공간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뀐다!
지난 가을, 석촌호수에 난데없이 등장한 거대 오리 인형 때문에 주변 일대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러버덕'이라 불리는 이 오리 인형은 네덜란드 출신의 현대미술 작가 플로렌테인 호프만의 대표작으로, 이제는 11개국 20개 이상의 도시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
『뜻밖의 미술』은 현대미술 작가 58개 팀의 참나의 예술작품들을 담아낸 책이다. 눈을 사로잡는 작품 사진과 더불어 각 작품마다 작가 혹은 평론가의 작품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대중과 호흡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작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동시대 미술작품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예술을 좀 더 친근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박성수 [redacted]
방정웅 [redacted]
안순금 [redacted]
엄기석 [redacted]
이광원 [redacted]
이명자 [redacted]
이봉금 [redacted]
이승훈 [redacted]
이우정 [redacted]
이진숙 [redacted]
이철규 [redacted]
이철량 [redacted]
이한배 [redacted]
물 호 [redacted]
정미현 [redacted]
송현성 [redacted]
이동형 [redacted]
송태정 [redacted]

전북회화

2015년 통권 제22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 이광원
편집위원 | 이광원, 박성수
전북회화 2015년 통권 22호
발행일 | 2015. 12. 10
대표연락처 | [redacted]
기획·제작 | 드린장애문 T. 287-9798



편.집.후.기

함박눈이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 놓은 설경
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현대의 허울 좋은 고독의 광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사람은 사람의 자연을 가지고 자기를 잃지 않은 인간의 향수를
지닌 자연의 언어와 표정을 상실하지 않은 회화 회 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삶의 목적이나 삶의 빛깔을 아주 정확하게
스스로 만들어 가며 쓸쓸한 현대를 소화해 내며
누구보다도 우수하게 일을 처리해 내고 있는 회원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행복감을 맛보도록
옥고를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회화회 회원들은 더욱 좋은 작품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속에서 풍성한 겨울나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계획

- 5월 회화회 세미나
- 하계 MT
- 10월 정기전
- 12월 총회

Magic Tree

매직트리 D I Y 가구공방

-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가구
- 소나무, 편백, 레드오크, 물푸레나무등 원목사용
- 환경마크 인증받은 천연도료 및 마감재 사용



T. 010.9452.7231【공방 회원모집 및 상담 환영】

신뱅이

신뱅이(新-)는 한옥마을에 새로 입군 밥입니다

지난 갑술년(1934) 전주 교동 98-1번지에
소박한 행랑채와 우물이 있는 아담하고 작은 한옥이 앉았습니다.
그 해엔 큰 비가 내려 경성도에서는 임정난 물난리가 있기도 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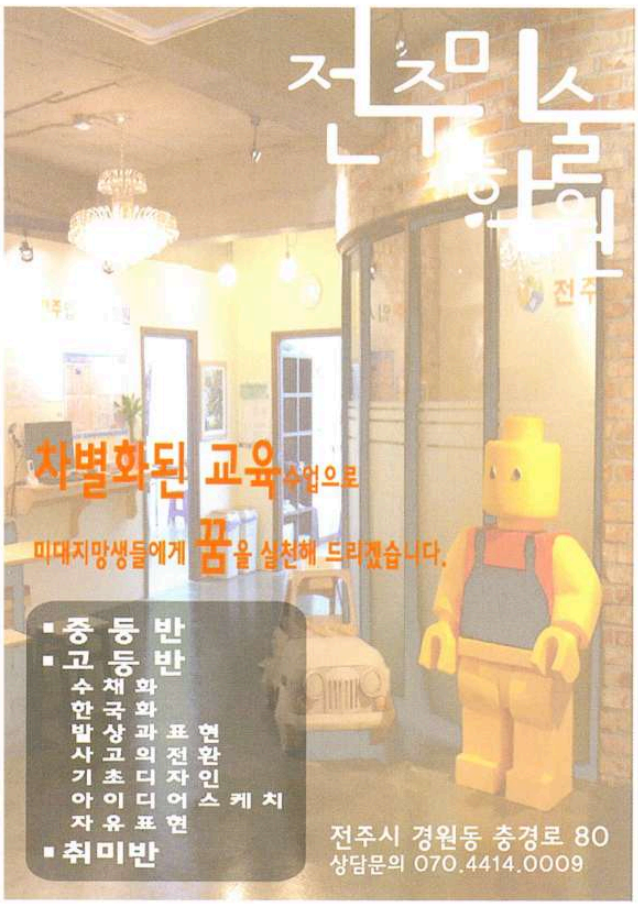
그리고 2010년 경인년
김치지기 안명자는 대목수 박칠성과 함께
깊이 숨어있던 대들보와 서까래,
덮여 있던 우물을 찾아내고 숨 쉬게 하였습니다.

낡은 것 같아도 닦아내면 윤기 나고 바라보면 멋스러운 이 집을
한옥마을의 새로운 벗으로 일구어 전주음식에 김치 향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전주의 맛과 향을 담아내고,
전주한지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문화가 피어나는 신뱅이.

무병장수의 상징인 거북이 가족이 옛 마을 솟대처럼 신뱅이를 지켜주며,
이두일미를 봄내는 임 큰 물고기가 여러분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 있는 학원!
그린섬에서 합격의 신화는
계속됩니다

SUPER GREENSUM LEGEND

2015-2004

"
서울대 11명 합격신화
이화여대 3년 연속 합격신화
고대, 이대 9명 합격신화
한예종 9명 합격신화
건국대 58명 합격신화
국민대 35명 합격신화
홍익대 43명 합격신화
예술고 255명 합격신화
"

모집분야

초등반 | 중등반 | 고등반
예중,예고계열반
대입반 | 유학반

수강과목

디자인 | 만화,애니
수채화 | 회화 | 기초조형
드로잉 | 포트폴리오



G 그린섬미술학원

NAVER 블로그 전주그린섬 | 서부그린섬 | 평화그린섬 | 송천그린섬 | 전주애니섬

경원캠퍼스(본원) 288 4466 | 서부캠퍼스 275 4284 | 송천캠퍼스 283 6512 | 평화캠퍼스 221 4080 | 애니섬 282 4607

2015

전북 회화

http://cafe.daum.net/artjb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